



한수달 4호 작품 분석 [미수록]

by.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 임태욱

깨끗한 식사 (김선우)

↳ 하나의 생명이었던 음식을 먹을 때 고마운 마음으로
남김 없이 먹는 식사

▷ 대유법 : 동물을 가리킴.

어떤 이는 눈망을 있는 것들 차마 먹을 수 없어 채식주의자가 되었다는데

↳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여 채식주의자가 된 사례를 인용하여 제시함.

내 접시 위의 풀들 깊고 말간 천 개의 눈망울로 뻗히 나를 쳐다보기 일쑤,

↳ 식물들에게도 생명이 있음

▷ 식물들도 생명체로서의 활동과 욕구가 있음.

이 고요한 사냥감들에도 핏물 자박거리고 꿈틀거리며 욕망하던 뒀안 있으니

↳ 접시 위의 풀들을 가리킴

▷ 익히지 않고 날로 먹음

내 앓은 접시나 그들 앓은 접시나 매일반. 천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생식을 할 때나 화식을 할 때나 육식이나 채식이
나 매일반. → → 운을 형성

↳ 불에 익혀서 먹음.

↳ 시대나 조리 방법과 상관없이 동식물이 생명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 없음.

1연 : 접시 위의 음식을 바라보며 동식물을 똑같은 생명체로 인식함.

▷ 생명체에 대한 외경심

문제는 내가 떨림을 잃어간다는 것인데, 일테면 만년 전의 내 할아버지가 알락꼬리암사슴의 목을

↳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여, 마음의 떨림이 없어지고 있는 문제의식

돌도끼로 내려치기 전, 두렵고 고마운 마음으로 올리던 기도가 지금 내게 없고 (시장에도 없고) 내

↳ 과거에 조상들이 수렵생활을 하던 시절을 예로 들. ↳ 옛 조상들은 생명체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과 경
건함이 있었으나, 화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음.

할머니들이 돌칼로 어린 죽순 밑동을 끊어 내는 순간, 고맙고 미안해하던 마음의 떨림이 없고 (상품과

↳ 과거 조상들이 먹거리를 마련하던 상황을 예로 들. ↳ 옛 조상들이 지닌 생명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없고,
오로지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만이 있을 뿐

▷ 음식으로 희생된 생명체에 대해 고맙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는 식사 모습을 의미함

화폐만 있고) 사뭇 괴로운 포즈만 남았다는 것.

↳ 생명체에 대한 진정한 존중심이 없고, 의례적으로 생명체의 존중을 말하는 태도만 남아 있다는 의미

2연 : 옛 조상들과 달리 생명체에 대한 존중심이 없는 것이 문제임.

▷ 음식을 먹을 때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먹어야 함

내 몸에 무언가 공급하기 위해 나 아닌 것의 숨을 끊을 때 머리 가죽부터 한 터럭 뿌리까지 남김없이 고맙게, 두렵게
잡숫는 법을 잃었으니 이제 참으로 두려운 것은 내 올라앉은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 인간도 언젠가 접시 위에 올라가 다른 생명들을 위한 음식이 될 수
있음.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도대체 이 무거운, 토막 난 몸을 끌고 어디까지!

↳ 음식을 먹을 때 생명을 존중하며 고맙게 먹어야 언젠가

↳ 음식에 대한 감정이입.

↳ 영탄법

자신이 죽은 후에도 다른 생명에게 온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음.

3연 : 내 육중한 접시가 언제쯤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

1. 갈래 : 자유시
2. 성격 : 비판적, 성찰적
3. 제재 : 현대인의 식사
4. 주제 : 시장과 화폐에 밀려 소중함과 고마움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식사를 비판함.

< 서술상의 특징 >

- 산문의 형태이지만 각 연의 종결어미를 생략하여 간결한 느낌을 형성함
- 시적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 내용상의 특징 >

- '깨끗한 식사'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희생된 생명에 대해 위로하며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는 식사를 의미한다. (같은 의미 : 고귀한 식사, 경건한 식사, 거룩한 식사, 신성한 식사)
- 화자의 접시 위의 음식들이 한때 생명을 지닌 존재였음을 상기하며, 음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떨림'을 잃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 화자는 동물뿐 아니라 식물도 본래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에 풀을 먹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
- 화자는 동식물을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 화자는 시간과 방법에 상관없이 동식물에 생명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등을 보며 - 서정주

가난이야 한낱 남루(襤褸)¹⁾에 지나지 않는다²⁾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맷빛³⁾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 산 같은⁴⁾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⁵⁾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⁶⁾

▶ 1연: 가난이 우리의 마음씨까지 가릴 수 없다.

청산(靑山)⁷⁾이 그 무릎 아래 지란(芝蘭)⁸⁾을 기르듯
 우리는 우리 새끼들을 기를 수밖에 없다⁹⁾
 목숨이 가다가다 놓을쳐¹⁰⁾ 휘어드는
 오후(午後)의 때¹¹⁾가 오거든
 내외(內外)¹²⁾들이여 그대들도
 더러는 앓고
 더러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¹³⁾

▶ 2연: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보살펴야 한다.

지어미¹⁴⁾는 지아비¹⁵⁾를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지아비는 지어미의 이마라도 짚어라¹⁶⁾

▶ 3연: 가난 속에서도 부부가 서로를 보살피라.

어느 가시덤불 쭉 구렁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늘 옥(玉)돌같이¹⁷⁾ 호젓이¹⁸⁾ 문혔다고 생각할 일¹⁹⁾이요
 청태(靑苔)²⁰⁾라도 자욱이 끼일 일²¹⁾인 것이다.

1) 누더기

2) 시적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

3) 짙은 초록 빛깔.

4) 변함이 없고 의연한 무등산의 모습

5) 인간의 순수한 본성

6) 설의법. 가릴 수 없다는 의미

7) 의인법

8) 지초(芝草)와 난초(蘭草)를 아울러 이르는 말.

9) '가난'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본연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운명으로 의연하게 받아들임.

10) '놓치다'의 방언(충남).

11) 시련의 시기

12) 아내와 남편

13)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의미

14) '아내'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15) '남편'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16) 시련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

17) 직유법. 고매한 인격과 높은 정신적 품격,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의 자세를 나타냄.

18) 후미져서 무서움을 느낄 만큼 고요하다.

19) 시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함.

20) 푸른 이끼

*각주 내 밑줄은 단어 설명을 의미

▶4연: 시련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관조적, 교훈적, 전통적
3. 제재: 무등산을 바라보며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 대해 성찰함.
4. 주제: 가난을 이겨내려는 삶의 여유와 긍정적 자세

<표현상 특징>

- 무등산을 의인화하여 인간적 가치를 부여함
-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 명령형 어조로 삶의 여유를 강조함
-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력을 강조함
- 직유법을 통해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내용상 특징>

- 시적 화자는 무등산의 모습을 부며 가난한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 시적 화자는 의지적인 태도로 가난이라는 고난을 견뎌가며 품격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1) 푸른 이끼와 같은, 미세하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는, 질긴 생명력을 의미

상행 22) - 김광규

가을²³⁾ 연기 자욱한 저녁²⁴⁾ 들판으로
 상행 열차²⁵⁾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²⁶⁾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 다오²⁷⁾ ▶1행~5행: 상행 열차에서 문득 발견한 자아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²⁸⁾이 네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²⁹⁾ 안테나들
 흥미 있는 주간지³⁰⁾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 다오³¹⁾ ▶6행~11행: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비판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의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³²⁾에 귀 기울이지 말아 다오³³⁾
 확성기마다 울려 나오는 힘찬 노래³⁴⁾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나³⁵⁾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³⁶⁾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 다오 ▶12행~19행: 향락에 빠져 사회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 비판
 되도록 생각³⁷⁾을 하지 말아 다오³⁸⁾
 놀라울 때는 다만
 <아!>라고 말해 다오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 다오³⁹⁾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에 관하여⁴⁰⁾

22)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감. 중앙 집권적인 근대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23) 계절적 배경

24) 시간적 배경

25) 지방에서 서울로 향하는 열차

26) 일상의 소시민적 삶에 대해 반성하는 긍정적인 자아

27) 명령형 어미 '다오'를 반복하여 청자인 '너'에게 특정한 인식과 행동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

28) 소시민적 삶에 찌든 부정적인 자아. '문득 낯선 얼굴'과 대조 관계

29) 1970년대 성장 위주의 획일화된 근대화의 상징

30) 감각적인 쾌락과 흥미를 중시하는 소비문화의 상징

31) 반어법

32)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소리

33) 반어법

34) 새마을 운동 노래

35) 반어법. 성장 위주의 근대화를 비판함.

36) 감각적인 쾌락을 주는 대표적인 상품

37) 자아성찰, 혹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고

38) 반어법

39) 반어법

이야기해 다오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 20행~30행: 부정적 현실문제를 회피하는 소시민적 태도에 대한 비판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2. 성격: 비판적, 풍자적, 상징적, 현실 참여적, 부정적, 자기 반성적
3. 제재: 상행열차에서 바라본 차창 풍경
4. 주제: 사회의 부정적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없는 근대화 비판, 소시민적 향락만 추구하는 근대화 과정에 대한 비판

< 표현상의 특징 >

-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 문제를 등한시 하는 청자를 비판함.
- 여러 사물들을 통해 부정적인 근대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냄.
- 명령형 어미 ‘다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 ‘너’라는 시적 청자를 설정하여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비판함.

< 내용상의 특징 >

- 기차 바깥은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오랫동안 가문 날씨’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삶이 함축적으로 드러난다.
- 차창 안은 화투판을 벌이고, 주간지나 들여다보며, 맥주나 콜라를 즐기면서 근대화의 풍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 화자는 근대화가 주는 고통스런 일면을 외면하는 소시민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아우를 위하여」 - 황석영

뭔가 네⁴¹⁾게 유익하고 힘이 될 말⁴²⁾을 써 보내고 싶다.⁴³⁾

네가 입대해 떠나간⁴⁴⁾ 이제 와서 우울한 고향 실정이나 우리의 지난 잘잘못을 들어 여기에 열거해 놓자는 건 아니야.

아무 얘기도 못 해 주고 묵묵히 너를 전송했던 형⁴⁵⁾의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나는 우리가 지금쯤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문제를 확실히 해 두고, 또한 장래를 굳게 믿기 위하여 내 연애 이야기⁴⁶⁾를 빌리기로 한다. 너는 십구 년 전에 내가 누구를 사랑한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마 놀랄 거다. 따져봐, 내 열한 살 때가 아니냐. 에이, 이걸 오히려 형의 달착지근한 구라를 읽게 됐군, 하며 던져 버리지 말고 읽어 주렴.⁴⁷⁾

너 영등포의 먼지 나는 공장 뒷길들이 생각나니⁴⁸⁾. 생각날 거야, 너두 그 학교를 다녔으니까. 아침마다 군복이나 물 빠진 푸른 작업복 상의를 걸친 아저씨들이 한쪽 손에 반찬 국물의 얼룩이 밴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공장 담 아래를 줄 이어 밀려가곤 했지. 우리 아버지두 그 틈에 있었을 거야. 참 그때 생각하면 제일 먼저 까마중 열매가 떠오른다.

▶ ‘나’가 아우에게 유익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편지로 유년 시절 경험담을 시작함

(중략)

애들이 앞에 나가서 코끼리 맴돌기⁴⁹⁾를 하고 있을 때, 자치회를 위하여 자리를 피해 주었던 선생님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랐다. “뭘 하구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입을 꼭 다물었고 영래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벌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벌을?” “애들이 단체 행동에서 빠지려구 합니다.” “단체 행동이라니……” “애들 때문에 우리가 져어요. 우리 반의 명예를 위해서 전부 놀이에 참가할 작정이었습니다.” “네, 그런가요. 언제 그 놀이를 해 보자구 여럿이서 의논을 했었나요?” 선생님의 한결같이 부드러운 질문에 영래가 대들듯이 거칠게 대답했다. “아뇨, 하나 마나죠. 우리 반을 위해서 나는 모두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⁵⁰⁾.” “물론 여럿이 하는 일에 마음이 모두 맞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만 주장해서는 절대로 무슨 일에서건 이길 수 없을 거예요.⁵¹⁾ 급장은 책임이 중할수록 누구에게 불만이 없는가를 살피고, 있다면 그 불만이 자기가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닌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겠다는 핑계로 제 잘못을 감추려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⁵²⁾”

▶ 학급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생선생님

그러나 자치회 때의 일로 영래와 중하, 은수 그 애들은 선생님을 점점 미워하게 되었고, 자기네와 별로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소녀라고 놀려 보려 했던 것이다. 그 애들은 병아리 선생님⁵³⁾에 관한 음탕한 욕지거리를 지껄이거나 그이가 돌아서서 칠판에 글씨를 쓸 때 일어나 쑥떡을 먹이며 이상스런 몸짓을 하는 거였다. 나는 이 공공연한 모독에 의한 아이들의 수치심⁵⁴⁾이 점차로 깊이 만연되어 가고 있었던 상태를 전혀 느끼지도 못했었다. 어느 산수 시간에 뒷자리 아이로부터 내게까지 작게 접은 종잇조각⁵⁵⁾이 건네져 왔으며, 펴 보고나서 나는 드디어 더 이상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종잇조각에는 “본 다음에 앞으로 돌릴 것. 임종하.”라고 씌어 있고 밑에다 그이에 관한 욕설에 곁들여 변소에

41) ‘너’라는 구체적인 청자가 설정 (편지 형식의 서간체 소설)
 42)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
 43) 편지를 쓴 이유.
 44) 가상의 청자가 군복무 중임을 알 수 있음
 45) 청자와 화자가 형제관계라는 점을 알게 함.
 46) 액자식 소설의 내부에 해당하는 이야기
 47) 동생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여, 끝까지 읽어줄 것을 장난삼아 설득함
 48) 공유된 기억을 환기시킴
 49) 학급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벌
 50) 다른 의견은 듣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독단적인 생각
 51)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
 52) 권위주의적인 학급 운영을 비판함
 53) 교생 선생님의 별명
 54) ‘나’가 영래 무리를 비판하기 위한 행동과 아이들이 동참하게 되는 계기와 이유
 55) 영래 무리가 교생 선생님을 비난하고 본인들의 행동에 동참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쓰여짐

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추잡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림을 책갈피에 끼워 넣고 시간이 끝나기를 애가 달아 기다렸다.⁵⁶⁾ 그동안 나는 별의별 무서운 공상에 시달렸다. 나는 얻어터진다. 머리가 깨어져 다 죽게 된다. 그이가 나를 업고 간다. 몇 날 몇 달을 끝없이 간다.⁵⁷⁾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뒤에서 종하가 대견한 짓이라도 해냈다는 듯이 “애들아, 그 쪽지 어디까지 갔는지 이쪽으로 다시 돌려라.” 하며 떠들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겁내지 않으려 애쓰면서 말했다. “내가 가졌다 왜. 정말 너 이따위 장난만 하거나?” 종하와 은수가 얼굴을 마주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킬킬 웃어 댔다. “그게 니 깔치니?” “구경했으면 고맙다구 그럴 게지, 이 새끼가 ……” 나도 지지않고 말했다. “너희들 사과 안 하면 그냥 안 둔다.” 그에게로 가서 종잇조각을 내밀어 주었다. “사과해, 너는 선생님을 욕보인 나쁜 놈이다.” “그래 병아리 선생님은 좋은 분이야.” 하고 석환이가 잇달아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⁵⁸⁾ “자, 이걸 네 손으로 찢어 버려.” “이 새끼가 …… 맞아 볼래?” 종하가 내 떡살을 잡아 앞뒤로 흔들다가 바닥에 쓰러뜨렸다. 은수와 영래가 “밟아 버려, 밟아.”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아이들이 뒤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제각기 떠들었다.⁵⁹⁾ “너희들이 잘못이다.” “우리는 병아리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분은 훌륭한 사람이야.” 기가 죽어 지내던 장판석이도 종하를 내게서 떼어 밀치면서 말했다. “애들 때리면 재미적다.” 은수와 종하는 아직도 영래의 행동을 기다리며 씨근거렸다. 아이들이 사방에서 한마디씩 했다. “학급비를 거둬다 우리한테 알리지두 았구 맘대로 쓴 건 잘못이다.” “요전에 동열이를 때린 것두 잘못이라구 생각한다.” “한 번도 자치회에서 물어보지도 았구 혼자 맘대로 한 건 더욱 잘못이다.” 영래는 자기가 반 아이들에게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이 샛노랗게 질려 있었다.⁶⁰⁾ “너희들 반장에게…… 이러기냐?” “너는 반장 자격이 없어.” “그만되라.” 나는 종하에게 종이쪽지를 내밀었다. 종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듯이 영래를 바라보자 그 애는 의외로 나약해진 목소리로 증얼거렸다. “찢어, 인마.” 종하가 그걸 찢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내게 사과 안 할 테냐?” 아이들이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래 사과하란 말야, 짜식들아.” “사과 안 하면 몰매를 놓아서 쫓아내라.” 종하가 아주 비굴하게 들릴까 말까 한 음성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우리는 모두가 그 애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풀이 죽은 걸보고서 어리둥절해질 지경이었다.⁶¹⁾ 나의 들끓던 수치감은 그때에 짝 몰려 있던 오줌이 방광을 비집고 쏟아져 나를 때처럼 외부로 터져 나갔고, 가벼운 몸서리를 흠칫 느꼈던 것이었다.

▶용기 내어 영래 무리들에게 저항한 ‘나’와 아이들

1. 갈래 : 현대소설, 단편소설, 서간체 소설, 성장소설, 액자 소설
2. 성격 : 교훈적, 우의적
3. 제재 : 불의에 맞서는 용기
4. 주제 :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의지

< 특징 >

- 과거의 사건을 내부 이야기로 하는 액자식 구성
- 형이 군에 입대한 아우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 짐
- 전쟁 이후 한 교실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우의적으로 표현함
- 선명한 대립 구조로 문제 상황과 그 해결 과정을 보여주며 교훈적 의미를 전달함
- 부당한 권력의 횡포와 몰락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저항의 용기를 강조함

56) 불의의 상황에 동참하지 않은 ‘나’

57) 불의한 권력자에게 저항을 결심하면서 생기는 두려움

58) 아이들이 ‘나’의 용기에 동참하기 시작함

59) 개인적 비판이 공동체의 비판으로 확장됨

60) 반 아이들의 저항에 당황함 (민중의 저항에 겁먹은 권력자의 모습을 상징)

61) 약하다고 여겼던 반 아이들에게 권력과 폭력을 일삼았지만, 단결을 통해 강해지자 두려워하며 몰락하는 모습(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비겁한 모습)

「정읍사 - 그 천년의 기다림」- 문순태

월아는 문득 고개를 들어 멀리 야청빛⁶²⁾으로 햇살 속에 굵적굵적⁶³⁾ 솟아오른 말고개 쪽⁶⁴⁾을 보았다. 지난밤에도 꿈속에서 남편은 전복⁶⁵⁾ 자락 휘날리며 말을 타고 날 듯이 들판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⁶⁶⁾ 소금 지게⁶⁷⁾ 대신 투구에 삼지창을 든⁶⁸⁾ 당당하고도 다부진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손을 휘저으며 아양 고개⁶⁹⁾를 뛰어 내려갔다. 말을 탄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남편과 함께 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었다. 도림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속덕거린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한 모습의 남편을 보이고 싶었다.⁷⁰⁾ 월아는 너무 반가워 아양 고개를 뛰어 내려가며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밤출이⁷¹⁾가 소스라치듯 울었다. 꿈이라는 것을 안 월아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월아는 고개를 들어 밤마다 꿈속에서 남편이 말을 타고 내달아 오던 들판을 바라보았다.⁷²⁾ 눈이 시리다 못해 어지러웠다.

말고개 위쪽 높은 하늘에 흘러가는 조각구름을 목이 아프도록 쳐다보던 월아는 갑자기 온몸이 허물어지듯 산전의 땅 바닥에 힘없이 퍼지르고 앉았다.⁷³⁾ 열흘 남짓 신열을 앓고 헛소리까지 내질렀던 ⁷⁴⁾월아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고 오랜만에 산전⁷⁵⁾ 잡초를 뽑는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온 것이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남편은 장삿길을 떠난 지 2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조차 없다. 정말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⁷⁶⁾ 비사벌과 황산, 그리고 금마에서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혹시 남편도 백제군으로 징발⁷⁷⁾당해 신라군한테 죽임을 당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⁷⁸⁾부모님 말대로 살아 있다면 소식이라도 전해 왔을 것이 아닌가. 월아는 강하게 고개를 흔들었다.⁷⁹⁾

월아는 아직도 도림이 죽지 않고 꼭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전쟁 중에 징발을 당해 싸우다 죽지도, 포로가 되어 신라로 끌려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⁸⁰⁾ 월아는 그가 돌아올 날만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날 밤도 월아는 자정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다가, 세상이 고즈넉이 잠든 사이 부모님 몰래 큰샘 거리⁸¹⁾로 나갔다. 그녀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왕버드나무 밑에 놓고, 동편 하늘을 향해 합장하며 남편을 돌려보내 달라고 절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그녀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두 해 동안 매달 보름달⁸²⁾이 뜨기를 기다렸다가, 큰샘 거리에 나가 찬물로 몸을 칼칼하게 씻고⁸³⁾, 천지신명께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어 왔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할 데라고는 달님과 산신령, 용왕님, 목신님, 지신님, 부처님, 미륵님뿐이었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 달님께 전달된다면 남편을 무사히 돌려보낼 것으로 믿었다.

월아는 달님에게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빌고 나서는 버릇처럼 노래⁸⁴⁾를 흥얼거렸다.

62) 검은빛을 띤 푸른 빛

63) 몸을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

64) 남편이 오는 방향

65) 무관들이 입던 옷

66)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월아의 마음

67) 월아의 남편(도림)이 소금 장수 임을 알 수 있다.

68) 월아의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있음이 꿈에서 나타남

69)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동에서 신월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아양산(娥洋山) 자락에 있어 아양고개라고도 한다.

70) 마을사람들은 도림의 죽음을 예상

71) 월아의 아들

72) 남편을 기다리는 월아의 간절한 마음

73) 남편이 오지 않는 허탈감

74) 남편을 기다리는 슬픔과 고통

75) 산에 있는 밭

76)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는 월아

77) 국가에서 사람이나 물자를 강제로 모으거나 거둬

78)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치르는 시대상황 드러남

79) 남편의 죽음을 강하게 부정

80) 남편의 살아 돌아오리라는 강한 믿음

81) 정읍(井邑)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연관

82)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대상

83) 몸을 정갈하게 함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그녀는 혼자 있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노상 이 노래를 흥얼거렸다.⁸⁵⁾ 자정이 넘고 첫닭이 훼를 칠⁸⁶⁾ 무렵에야 큰샘 거리에서 돌아오면서 월아는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다.

(중략)

“나도 요번에는 참말로 잘 싸울 자신이 있다네.”
“살어서 집에 돌아갈 궁리나 허소. 기다리는 여편네 생각도 해야제.”
“언젠가는 떳떳하게 처자식 앞에 나타나고 말 거여.”

도림은 집에 있는 월아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육신이 바람이 되어 천지간에 흔적조차 없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듯한 고적감에 떨었다.⁸⁷⁾ 그 처절한 순간만은 자신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나의 녀만이 이 세상을 홀로 쓸쓸하게 떠돌음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곤 하였다.⁸⁸⁾ 집에 있는 월아를 생각할라치면 가슴에 삼지창이 꽂히고 숨이 턱 끝에 차오르면서 사지가 말갈기처럼 산산이 찢기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⁸⁹⁾ 그 아픔을 견뎌 내기 위해 술을 퍼마셔야만 했고 때로는 버들을 품에 안아야만 했다. 그러고도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는 목을 매고 싶었다.

도림은 샘바다⁹⁰⁾를 떠나오던 때를 돌이켜 보았다. 검단⁹¹⁾ 소금밭 으로 떠나던 날 새벽⁹²⁾, 달기와 함께 괴다리⁹³⁾까지 따라 나온 월아는 이번 장삿길은 며칠이나 걸리느냐고 거듭 물었었다. 열흘 남짓 걸릴 것이라는 말에 월아는 탄식과도 같은 한숨을 내쉴었다. 그날 월아는 한사코 그만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오래도록 괴다리에 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 보고 있었다. 그가 월아를 생각할 때마다 괴다리에서 마지막 보았던 그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월아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자 갑자기 목구멍이 후끈거리면서 콧등이 시큰해졌다.⁹⁴⁾

“그러,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각시 생각도 해야제. 대장부답게 싸워서 꼭 이겨야제.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가 있으 니께⁹⁵⁾.”

도림은 달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둥근 달 속에서 홀로 처연하게 서 있는 월아의 모습을 발견⁹⁶⁾하고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1. 갈래 : 현대소설
2. 성격 : 애상적, 기원적, 서정적, 서사적
3.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4. 제재 : 기다림과 사랑
5. 주제 : 간절한 기다림과 사랑

<서술상의 특징>

- 현전하는 유일의 백제가요 <정읍사>를 모티프로 함

84) 백제가요인 ‘정읍사’를 월아의 노래로 설정.
85) 월아가 늘 도림을 걱정하며 도림이 돌아오기를 기원. 남편을 기다리는 월아의 애타는 마음
86) 닭이나 새 따위가 날개를 벌리고 탁탁 치다. 잠에서 깨다.
87) 월아와 이별한 상태인 도림의 고독감
88) 월아가 없는 도림 자신의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
89) 월아를 그리워하는 도림
90) 정읍. 정읍의 지명은 정촌현. 정촌현이 있었던 마을 이름이 정해(井海)다. 샘이 바다를 이룬 마을이란 뜻이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샘바다 또는 새암바다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91) 정읍시 칠보면에 있는 지명
92) 월아와 도림이 이별한 공간과 시간.
93) 정읍 근처의 다리(橋), 망석이 있는 곳으로 추측하기도 함
94) 도림이 고적감 속에서 월아를 그리워하고 있음
95) 전투를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96) 달을 보고 월아를 떠올림

- 전지적 작가시점으로 인물의 내면을 소상하게 드러냄
- 산문 안에 운문을 넣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

<내용상의 특징>

- 월아의 행동을 통해 남편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드러남
- 전통적인 서정인 기다림을 서사형식으로 풀어냄
- 신라와 백제간의 전쟁 상황을 설정해 남녀 간의 사랑과 기다림을 엮음

「탈출기」 - 최서해

김 군! 수삼 차 편지는 반갑게 받았다.⁹⁷⁾ 그러나 나는 한 번도 화답지 못하였다.⁹⁸⁾ 물론 군의 충정⁹⁹⁾에는 나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충정을 나는 받을 수 없다.

▶ 김 군이 편지에서 밝힌 충정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나’

— 박 군!¹⁰⁰⁾ 나는 군의 탈가(脫家)¹⁰¹⁾를 찬성할 수 없다. 음험한¹⁰²⁾ 이역¹⁰³⁾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버리고 나선 군의 행동을 나는 찬성할 수 없다.¹⁰⁴⁾ 박 군! 돌아가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¹⁰⁵⁾ 군의 부모와 처자가 이역 노두¹⁰⁶⁾에서 방황하는 것을 나는 눈앞에 보는 듯싶다. 그네들의 의지할 곳은 오직 군의 품밖에 없다. 군은 그네들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군은 군의 가정에서 동량(棟樑)¹⁰⁷⁾이다. 동량이 없는 집이 어디 있으랴? 조그마한 고통으로 집을 버리고 나선다는 것이 의지가 굳다는 박 군으로서는 너무도 박약한¹⁰⁸⁾ 소위¹⁰⁹⁾이다.

군은 xx단에 몸을 던져서 x선에 섰다¹¹⁰⁾는 말을 일전 황 군에게서 듣기는 하였으나 그렇다 하여도 나는 그것을 시인할 수 없다. 가족을 못 살리는 힘으로 어찌 사회를 건지랴.¹¹¹⁾

박 군! 나는 군이 돌아가기를 충정으로 바란다. 군의 가족이 사람들 발 아래서 짓밟히는 것을 생각할 때 군의 가슴인들 어찌 편하랴.

▶ 집을 나와 독립단에 가입한 나(박 군)와 가족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는 김 군의 편지

김 군! 군은 이러한 말을 편지마다 썼지?¹¹²⁾ 나는 군의 뜻을 잘 알았다. 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동정하여 주는 군에게 내 어찌 감사치 않으랴? 정다운 벗의 충고에 나는 늘 울었다. 그러나 그 충고를 들을 수 없다. 듣지 않는 것이 군에게는 고통이 될는지 분노가 될는지?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일는지도 알 수 없는 까닭이다.

97) 편지 형식의 서간체 소설임을 알 수 있음.

98) 김 군이 몇차례 편지를 보냈지만, ‘나(박 군)’가 그 동안 답장하지 못하다가, 지금 답장을 쓰고 있는 상황

99)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정 (후술할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을 가리킴)

100) ‘나’를 가리킴

101) 자기 집에서 나갈

102) 음산하고 험악하다

103) 본고장이나 고향이 아닌 다른 곳

104) ‘나(박 군)’는 집에 나온 상황(탈가)임을 알 수 있음

105) 김 군이 ‘나(박 군)’에게 보낸 편지에서 충고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음

106) 길거리

107) 기둥 (집안에서 중대한 인물을 지시할 때 쓰는 말)

108) 의지나 체력 따위가 굳세지 못하고 여러다

109) 하는 일 소행

110) 독립단에 가입하여 독립단원이 됨

111) 작은 일을 못하면서 큰일을 할 수 없다고 설득함

112)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김군의 설득이 여러번 있었음

김 군! 나도 사람이다. 정애(情愛)가 있는 사람이다. 나의 목숨 같은 내 가족이 유린받는 것을 내 어찌 생각지 않으랴?¹¹³⁾ 나의 고통을 제삼자로서는 만분의 일이라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이제 나의 탈가한 이유를 군에게 말하고자 한다. 여기 대하여 동정(同情)과 비난(非難)은 군의 자유이다. 나는 다만 이려하다는 것을 군에게 알릴 뿐이다. 나는 이것을 군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받는 까닭이다.¹¹⁴⁾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군도 사람이거나 나의 말하는 것을 부인치는 못하리라.

(중략)

부지런하다면 이때 우리처럼 부지런함이 어디 있으며 정직하다면 이때 우리 식구같이 정직함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빈곤은 날로 심하였다.¹¹⁵⁾ 이를 사흘 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번은 이틀이나 굶고 일자리를 찾다가 집으로 들어가기 부엌 앞에 앉았던 아내가(아내는 이때에 아이를 배서 배가 남산만 하였다.) 무엇¹¹⁶⁾을 먹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손에 쥐었던 것을 얼른 아궁이에 집어넣는다. 이때 불쾌한 감정¹¹⁷⁾이 내 가슴에 떠올랐다.

“무얼 먹을까? 어디서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이길래 어머니와 나 몰래 먹누? 아! 예편네란 그런 것이로구나! 아니 그러나 설마…… 그래도 무엇을 먹던데…….”

나는 이렇게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밋게도 생각하였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씩씩 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그 얼굴은 좀 붉었다.

아내가 나간 뒤에 나는 아내가 먹다가 던진 것을 찾으려고 아궁이를 뒤졌다. 싸늘하게 식은 재를 막대기로 뒤져내니 벌건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집었다. 그것은 굴껍질[橘皮]¹¹⁸⁾이다. 거기는 배 먹은 잇자국이 났다. 굴껍질을 쥐니 나의 손은 떨리고 잇자국을 보는 내 눈에는 눈물이 괴었다.¹¹⁹⁾

김 군! 이때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면 적당할까?

‘오죽 먹고 싶었으면 오죽 배고팠으면, 길바닥에 내던진 굴껍질을 주워 먹을까! 더욱 몸 비쌌¹²⁰⁾ 그가! 아아,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한 아내를 나는 의심하였구나! 이놈이 어찌하여 그러한 아내에게 불평을 품었는가? 나 같은 간악한 놈이 어디 있으랴.¹²¹⁾ 내가 양심이 부끄러워서 무슨 면목으로 아내를 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느껴 가며 눈물을 흘렸다. 굴껍질을 쥐 채로 이를 악물고 울었다.

“야, 어째 우느냐? 일어나거라. 우리도 살 때 있겠지, 늘 이렇겠느냐.”

하면서 누가 어깨를 친다. 나는 그것이 어머니인 것을 알았다. 나는,

“아이구 어머니, 나는 불효외다.”

하면서 어머니의 발을 안고 자꾸자꾸 울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 없이 가슴을 부둥켜안고 밖으로 나왔다.

▶아내를 의심한 ‘나(박 군)’의 자책

1. 갈래 : 현대소설, 서간체 소설
2. 성격 : 사실주의적, 현실 비판적, 자전적, 고백적, 저항적
3. 배경 : 일제시대, 만주의 간도 일대
4.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3. 제재 : 식민지 조선인의 생활상
4. 주제 : 식민지 시절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및 조선의 농민이 겪는 고통과 분노

113) ‘나(박 군)’의 결단은 고통스럽고 쉽지 않았음
 114) 가족을 떠나서 독립단에 가입한 이유를 밝히려고 함.
 115) 정직하고 부지런 함에도 가난해지는 모순된 현실
 116) 독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함
 117) 아내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생긴 원망과 미움
 118) 궁핍했던 간도의 삶을 상징하는 소재
 119) 아내를 의심하고 원망했던 자신을 반성함
 120) ‘임신’의 관용적 표현
 121) 아내를 의심한 자신을 자책

< 특징 >

- 자신이 받은 편지에 답장을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서간체 소설
- 서간체 형식과 1인칭 시점을 통해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자전적 요소가 강한 소설로 체험 문학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임
- 일제 강점기 하층민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신경향파 문학 작품
- 인물의 의식 변화를 통해 주제를 명시적으로 제시함

「해산 바가지」- 박완서

[앞부분 줄거리] ‘나’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며느리가 출산 후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함께 간다. 친구의 며느리가 누워 있는 옆 침대에서는 아들을 낳은 산모를 시골벽적으로 축하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친구는 둘째도 딸을 낳은 며느리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다.

“재가 시에미 대접을 어찌 이리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쯤 쳐다봐도 제가 시에미 같은 건 안중에 없다는 걸 모를 내가 아닌데.”¹²²⁾

친구가 착 가라앉은 그러나 떨리는 소리로 사돈 마님한테 이렇게 쓰고 드러누운 며느리를 나무랐다.

“저도 면목이 없어서 안 그러니까. 잘 먹지도 않고 시시때때로 저렇게 울고 속을 끓이니 저 애 풀이 말이 아닙니다.”¹²³⁾

“아니죠. 재가 시에미 알기를 워낙 개떡같이 아는 앵니다. 버르고 별려서 한마디 해도 어느 바람이 부나 하는 식이죠. 그러니 말해 뭘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번 일만은 어른 된 입장에서 한마디 다짐을 받고 넘어가야겠다 싶어 이렇게 왔더니만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까 그 사람들이 다 해 주지 뭐니까? ¹²⁴⁾저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겠죠. 더 보태지도 덜지도 않을 테니 그 사람들한테서 들은 소리¹²⁵⁾를 고스란히 명심하고 있으라 이르세요. 나 절대로 심한 시에미 아닙니다. 이번에 또 딸 낳은 것 가지고 뭐라지 않아요. 이 친구는 딸을 넷 낳고 기어이 아들을 낳았답니다.¹²⁶⁾ 딸 둘이 흥될 것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¹²⁷⁾ 그건 안 될 말이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¹²⁸⁾도 눈을 부라릴 일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사돈 마님. 더 긴 말은 안 하겠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말 다 해 줬으니까. 『그 사람들처럼 젊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이 시에미 생각을 덮어놓고 구닥다리 낡은 생각으로 치지도외¹²⁹⁾하지는 못하겠죠.』¹³⁰⁾ 이만 가 보겠습니다. 지가 시에미 풀 안 보려고 흥물을 떨고 있는데 시에미라고 제 풀 보고 싶겠습니까? 애, 가자.”

친구가 서슬이 퍼렇게 말하고 나서 내 소매를 잡아끌었다.

“이대로 가면 어떡허니? 안 오니만도 못하게.”

나는 친구 눈치를 봐 가며 모포 위로 슬며시 산모의 어깨를 잡았다. 격렬한 떨림¹³¹⁾이 손아귀에 닿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한 축하와 위로를 겸한 인사말을 까먹고 말았다.

122) 글쓴이의 친구로 며느리가 또 딸을 낳은 것에 대해 못마땅함을 표현

123) 시어머니의 질책에 딸을 감싸는 친구의 사돈

124) 남아 선호사상이 만연한 당시의 세태

125) 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것

126) 글쓴이인 ‘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넷이나 낳았다고 생각

127) 아들이 반드시 낳아 가문이 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임

128) 자비로운 부처의 가운데 부분과 같이 마음이 지나치게 어질고 순한 사람을 이르는 말.

129) 치지도외(置之度外 : 마음에 두지 아니함)

130)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일반적인 통념인 것으로 강조

131) 친구의 며느리가 매우 괴로워 하고 있음

“가자니까, 시에미 우습게 아는 게 시에미 친군들 안중에 있을라구.”

친구는 내 등을 떠다밀다시피 해서 먼저 문밖으로 내쫓고 따라 나왔다. 뒤쫓아 나온 사돈 마님은 참회하는 죄인보다 더 기운 없이 고개를 떨구고 파리한 입술을 간신히 들먹여 면목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했다.¹³²⁾

(중략)

내가 첫애를 났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 보고 선달¹³³⁾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¹³⁴⁾를 구해 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¹³⁵⁾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님은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 놓았다. 또 손수 장에 나가 보얀 젓빛 사발도 한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 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켤졌다.¹³⁶⁾ 외아들을 둔 시어머님이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음 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 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¹³⁷⁾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¹³⁸⁾ 때문에 인줄¹³⁹⁾을 걸고 부정을 기(忌)¹⁴⁰⁾하는 삼칠일¹⁴¹⁾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¹⁴²⁾하고도 경건한 의식¹⁴³⁾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¹⁴⁴⁾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¹⁴⁵⁾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님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¹⁴⁶⁾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¹⁴⁷⁾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였다. 그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¹⁴⁸⁾ 그분의 망가진 정신¹⁴⁹⁾, 노추¹⁵⁰⁾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¹⁵¹⁾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¹⁵²⁾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132)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던 당시 사회의 잘못된 생각을 볼 수 있음

133) 음력 12월

134) 남아, 여아를 차별하지 않는 생명존중사상

135) ‘해산 바가지’의 역할

136)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 편지 못한 마음. 사회에 만연한 남아선호사상에서 ‘나’는 자유롭지 못함

137)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시어머님의 모습

138) 생명을 존중하는 시어머님의 모습에서 자식을 낳은 것에 대한 진정한 기쁨을 느낌

139) 금줄, 부정한 것의 침범을 막기 위해 문등에 매는 새끼줄

140) 꺼리거나 피하다

141) 세이레(아기가 태어난 후 스무하루 동안)

142) 희색만면(喜色滿面 :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함) 여아든 남아든 구분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기쁜 일임을 보여줌

143) 해산 바가지에 국과 밥을 담아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복을 비는 일

144) 남아선호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해 딸을 낳은 것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낌

145) 남아선호사상의 분위기

146) 아들 딸 구분 않고 생명의 탄생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시어머님의 모습

147) 태어난 아이를 맞아 대접

148)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는 일

149) 시어머님이 치매에 걸린 상태

150) 노추(老醜 : 늙고 추함)

151)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152) 『 』, 시어머님의 생명을 존중했던 모습을 기억하며, 노환으로 힘겨운 어머니 역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

나는 남편이 막걸릿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¹⁵³⁾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¹⁵⁴⁾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삼 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던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 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누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¹⁵⁵⁾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없게 됐다.¹⁵⁶⁾ 시어머니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서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¹⁵⁷⁾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1. 갈래 : 단편 소설
2. 성격 : 현실 비판적, 회상적
3. 배경 : 1980년대 서울
4.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5. 주제 :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남아선호사상 비판

<등장인물>

'나' : 시어머니의 치매로 인해 부양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요양원에 보내려 하지만, 지난날 시어머니가 보여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깨닫고 다시 모시게 됨.

'나'의 시어머니 : 아이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기르며 생명 그 자체를 소중히 하는 모습을 보여 줌.

'나'의 친구 : 며느리가 딸만 둘을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자 속상해 하며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을 드러냄.

남편 :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

<서술상의 특징>

- 내부 이야기가 외부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액자식 구성으로 전개됨(뒷부분의 바깥 이야기는 없음.)
- '해산 바가지'라는 상징적 소재를 사용해 시어머니의 생명존중사상을 보여줌

<내용상의 특징>

- 남아 선호 사상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대조해 주제를 포출
- 과거를 회상하면서 서서히 주인공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줌
- 남아선호 사상과 그에 따른 성차별적인 세태 비판
-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부양 문제에 대한 인식 촉구

153)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기로 결정

154) 남편 역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 마음의 짐을 덜어냄

155) 위선으로 효부인척 시어머니를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인간적인 존중감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대함

156) 위선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고 애정을 표시하면서 '나'는 평화를 되찾음

157) 시어머니의 평화로운 죽음

동행 - 임철우

[앞부분 줄거리] 일주일 전, '나'는 친구였으나 정치적 이유로 수배를 당해 소식이 끊겼던 '너'를 만난다. 그리고 '너'는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박스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다.

넌 선선히 대답했다. 우리는 정문에 다다랐다. 경비실 안에서 경비원인 듯한 두 사내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너는 앞장서서 성큼성큼 걷고 있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으나 그냥 묻지 않기로 했다. 네 말마따나 모르는 것이 피차 좋을지도 모르니까. 어쨌든 넌 비밀투성이¹⁵⁸였다. 아직도 나는 네가 기거하고 있는 집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형편이었다. 전화를 걸어오는 건 언제나 네 쪽이었고, 어제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밤 열 시가 막 지날 즈음이었다.

M시로 가는 열차 편 좀 알아봐 줘. 너랑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그래 주겠니?¹⁵⁹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그렇게 말했다. 이날은 강의가 있었다. 몇 과목은 이날 종강할 것이라고 했다. 아마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의가 될 터였다.¹⁶⁰ 하지만 그까짓 강의쯤은 아무래도 좋았다.¹⁶¹ 그보다 나는 M시에로의 위험한 나들이의 이유¹⁶²에 대해서, 또 왜 하필 나와의 동행을 네가 요

구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펍 궁금했다. 그러나 그 문제 역시 입을 다물어 두기로 하자. 어차피 동행할 거라면 차차 알게 되겠지.

정문 앞에서 택시를 탔다. 마흔 살쯤 되어 보이는 운전수는 S읍까지는 시의 요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오백 원을 깎은 액수로 합의를 보았다. 차는 종합운동장을 끼고 난 고가 도로의 오르막길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잠시 우리는 침묵했다. 멀리 무등산이 보였다. 산의 거대한 몸체가 언제나처럼 도시를 품에 안은 채 묵묵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우직한 선머슴 같은 산의 무릎에서 이 도시 사람들은 웅기종기 모여들어 살고 있었고, 우리 둘 역시 거기서 나고 자라 온 것이었다. 하지만 산은 이젠 어느덧 짙은 남빛 슬픔의 빛깔로 음울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¹⁶³

차창 너머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문득 너와 나를 떼어 놓았던 지난 일 년 반의 시간과 그 마디 끊긴 시간의 한 쪽 끝을 저마다 손가락이 감아쥐고 다시 되돌아온 지금의 우리

들을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어쨌든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님을 서로가 깨닫고 있었다.¹⁶⁴ 전장으로부터 돌아온 귀환병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우리였으나, 또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실로 까마득하게 오랜 세월같이 여겨지는 일종의 진공 상태와도 같았다. 너와 나 사이에는 거대한 협곡이 밀도 끝도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아가리를 벌린 채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쪽 벼랑 끝에 마주 서서 우리는 이 순간 아찔한 절망감과 당혹감으로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¹⁶⁵

결에서 어깨를 바짝 붙이고 앉아 있는 네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좀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그 서먹한 느낌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따져 보려 했다.

(중략)

대합실 건물의 외벽에 갖가지 벽보가 어지러이 붙어 있는 게 보였다. 불조심. 자연 보호. '속은 인생 어제까지, 밝은 인생 오늘부터'라고 적힌 방첩¹⁶⁶ 포스터, 그리고 그 옆으로 하사관 모집 광고와 지명 수배자들의 사진도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이십칠 세. 신장 백칠십오 센티미터. 미남형에 호리호리한 체

158) 수배생활로 인해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부각

159) '너'가 전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160) 서술자 '나'의 신분(졸업을 앞둔 대학생)이 드러남.

161) '나'가 '너'를 만나고 싶어함.

162) 은유 : 수배자인 '너'와 동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비유적으로 표현.

163) 감정이입 : '나'가 느끼는 '이 도시 사람들이 겪은 사건'과 '너'의 현재 상황

164) '너'와 '나', 그리고 둘 사이 관계가 만나지 못한 동안 달라져 있음

165) 일 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변해버린 '너'와 '나'의 거리감과 당혹감이 드러남.

166) 간첩 활동을 방지(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음)

격.167) 그 아래에 고등학교 교복 차림의 네 사진도 틀림없이 끼여 있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지금 바로 내 곁에 앉아 있는 우스꽝스런 차림의, 얼핏 보면 사십 대쯤으로나 보이는 더부룩한 구레나룻의 뚱뚱한 사내를 나는 새삼스레 쳐다보았다. 그러다가 사진 속의 옛된 소년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쿡쿡 웃고 말았다.168) 너는 무심한 표정을 내게 돌리고 있었다.

왜 그래.

아냐, 그냥. 흐흐흐. 네 사진 본 적이 있니?

어디……?

내가 턱 끝으로 벽보를 가리키며 웃었고, 잠시 그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던 너는 고개를 저었다.

인마, 너 그치들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더구나. 몸이 후리후리한 미남형이란다, 너더러. 으흐흐.

그래?

비로소 너는 조금 웃었다. 그러더니 이내 낮게 한숨을 깔아 내쉬며 허공에 시선을 던지는 것이었다.169) 나는 순간 다시금 속으로 후회를 씹으며 발끝에다가 시선을 박았다. 온몸이 모래 속에 묻힌 듯 꺼끌꺼끌한 느낌에 커다랗게 고함이라도 내질렀으면 하는 심정이었다.

지난 일 년 반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고 네 얼굴과 마주쳐야만 했었다. 극장이나 다방, 식당, 대합실, 술집, 당구장…….170) 그 어디를 가나 너는 줄곧 우리를 따라다니며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었다. 지난봄, 졸업여행을 갔던 제주도 어느 여관의 방 안에까지 쫓아 들어온 교복 차림의 너 때문에 그날 밤 우리는 녹초가 되도록 술을 퍼마셨고 엉망으로 추태를 떨어야 했다. 하지만 차라리 그때가 더 우리에게겐 마음 편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현상 수배자의 사진 속에 너를 가두어 놓고 나서 이따금 낡은 앨범을 펼치듯 적당한 양의 감상과 자기 합리화를 취향껏 덧칠해 가면서 너를 들여다볼 수 있었을 동안만은 그래도 너는 우리들에게겐 여전히 기억 속의 이름으로서만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네가 다만 과거의 기억 속에서 머물러 있어 주는 한, 그래도 우리는 술에 취하면 잠들 수가 있었고, 가끔은 아픈 생채기를 손톱으로 핏줄이 대며 저주 섞인 낫두리를 퍼부어 대다가도 그것이 끝나면 사실은 더 많은 일상의 권태와 망각 속으로 쉽사리 몸을 던져 넣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171) 우리들은 피곤했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겨웠으므로 우리는 차라리 잠들어 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비된 의식과 교살당한 영혼을 희뿌연 혼돈의 나락을 향해 까마득히 침몰해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었다. 그래. 모두들 가라앉고 있었다. 저마다 탈색된 눈빛으로 심연의 저편으로 어느덧 차츰차츰 가라앉아 가고 있는 참이었다. 잠들어라. 깊이깊이 잠들어라. 영영 깨어나지 않을 잠172) 속으로 투신하라. 깊이깊이. 오래오래……. 어디선가 감미로운 음악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귓전에 불어오는 소리. 소리. 소리. 그 불경한 주문을 들으며 우리는 침하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마다 그 감미로운 속삭임을 이렇게 은밀히 서로서로 따라서 되된다. 잊어라. 잊어버려라. 옛날은 옛날일 뿐. 기억은 기억일 뿐. 보다 새롭고 싱싱한 내일을 위해 악몽은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지워 버려라. 깨 곳아. 완벽하게…….

아아. 그런데 하필 이 순간에 네가 나타난 것이다.173) 그 불쾌하고 섬뜩한 악몽의 흔적을 우리의 졸리운 뇌리로부터 감히 곡괭이질해 내기 위한 하나의 음모로서, 그리고 그 악몽의 명백한 증거물로서 네가 나타난 것이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어거지를 쓰듯, 우리의 이 몽롱한 최면의 당밀분을 함부로 휘저어 희석시키려는 당돌하고 무모한 음모와 함께, 너는 어쩌면 우리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모하여 억지로 너를 가두어 놓기를 원했음지도 모르는 저 네모난 사진174) 속으로부터 돌연히 튀어나와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분명한 실체로서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통증175)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었다.

167) '너'의 외적 묘사

168) 사진 속 '너'와 현재의 '너'의 외모가 너무 다른 것에 재미를 느끼는 '나'.

169) 간접적 제시 : '너'의 답답한 심정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남.

170) '너'의 수배 사진들로 가득 차 있는 공간들 ('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

171) 자아성찰 : 지식인으로서 역사적 상처를 망각하고 싶어 하는 태도에 대한 반성과 고백.

172) 저항을 멈추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173) 현실에 안주하고자 할 때 갑작스럽게 등장한 '너'.

174) '너'의 존재를 환기시키는 연결매개체

175) 감각적 표현 : 과거의 저항 정신을 떠올리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지금의 모습과의 괴리감에서 오는 자괴감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1. 갈래 : 단편소설
2. 성격 : 회고적
3. 배경 : 시간 - 1980년대. 공간 - 서울, M시, S읍
4.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5. 제재 : 수배중인 친구와의 '너'와의 만남 그리고 동행
6. 주제 : 불온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삶과 시대의식 고취

글의 구성

- 발단 : '너'를 기다리는 '나'
- 전개 : M시로 가는 차편이 마땅찮아 S읍까지 택시로 간다.
- 위기 : S읍에서 M시로 가는 열차를 탄다. 할 말은 많았지만 서로 침묵의 연속이다.
- 절정 : 열차 사고가 나고, 빗속을 뚫고 무사히 M시에 도착한다.
- 결말 : 뜨거운 악수를 나누고 '너'와 '나'는 헤어진다.

등장 인물

- 나 : 글의 화자. '너'의 갑작스런 출현에 초조와 불안을 안고 산다. M시까지 '너'와 동행하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깨닫는다.
- 너 : 수배 전단이 곳곳에 나붙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대학생.
- K : '나'와 '너'의 친구.

변방에 우짚는 새 - 현기영

“허울 좋은 독립, 조선 독립을 보장한다, 조선을 개화시킨다는 구실 아래 이권이란 이권은 저 오랑캐들이 다 차지해 버렸으니¹⁷⁶⁾ 피폐한 국가 재정을 무엇으로 메꿨습니까? 오로지 혈벗고 주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¹⁷⁷⁾ 국가재정을 세우고 왕실 비용을 충당하니…….” / 이렇게 나기주가 한탄하는데 이번엔 최 주사가 끼어들었다.
 “조정 것들¹⁷⁸⁾은 외국에 이권을 넘겨주고 구전 챙기는 거간꾼에 불과하죠. 그중 폐하의 총애가 가장 두터운 내장경 이응익의 발호가 가히 좌충우돌입니다. 벌써 수백만 금 모아 천하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¹⁷⁹⁾ 아십니까? 『왕실 비용을 마련한다고 두만강, 압록강의 드넓은 삼림 채벌권을 노서안¹⁸⁰⁾에 양도하질 않나, 법국 차관을 들여올 궁리를 하지 않나,』¹⁸¹⁾ 봉세관¹⁸²⁾을 팔도에 보내 세금을 더러더러 앵기고 있는 것도 그 작자의 사업입죠. 그중 우리 제주섬은 제일 만만하게 보아, 선산을 지키는 구부러진 소나무 한 그루에도, 띠풀 같은 잡초에도 세를 붙이니,¹⁸³⁾ 어찌 소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세액이 많은 지세가 큰 시뵈거리입죠. 『천지개벽 이래 수천 년 동안 우리 제주섬엔 지세라곤 없었습니다. 지세 대신 진상물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지세까지 내라니,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감.』¹⁸⁴⁾ ▶ 국가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과도한 세 부담

176)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외세의 의한 이권 침탈이 이루어졌다고 봄.
 177) 국가 재정이 부족하여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짐.(비판적 현실 인식)
 178) 외세의 이권 침탈을 돕고 있는 조정 대신들
 179) ① 조정대신이 사리사욕을 채움. ② 백성들 사이에서 개인의 사욕을 우선하는 조정 대신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
 180) '러시아'의 음역어
 181) 『』: 그 시대의 이권 침탈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
 182)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183) 소요(민란)의 원인이 세금을 명목으로 한 과도한 수탈임을 지적함.
 184) 『』: 진상으로 대신하고 있던 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상황의 억울함을 지적함.

“자네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릴 하는구먼,¹⁸⁵⁾ 허허. 지세라면 별칭이 왕세(王稅)인데 제주섬도 조선 왕의 땅이거늘, 왕세는 내야 함이 도리가 아닌가.¹⁸⁶⁾ 요 근래는 진상도 하지 않는 모양¹⁸⁷⁾인데…… 굴 과수원도 봉세관을 시켜 민간에 팔아 치워 폐지하지 않았는가.”

“대감, 잘못 알고 계십니다요. 진상이 없어진 게 아님쎄. 굴 진상은 폐지된 게 사실입니다만 ¹⁸⁸⁾전복 진상은 어망세에 갖다 붙이고, 말 진상은 공마대전(貢馬代錢)이라 하여 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기주가 입을 열었다.

“흠,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진상이란 원래 속방(屬邦)이 종주국에 바치는 예물이 아니오?¹⁸⁹⁾ 예로부터 이 섬에 왕세 대신 진상의 의무를 지운 것은 별다른 뜻이 있는 거지요.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는 수천 리 물 밖에 있음을 기화로 자주 토란(土亂)을 일으켜 조정에 거역하는 섬 백성들을 무마시켜 보려는 고육지책이쎄. 왕세가 없고 진상이 있음은 곧 제주섬이 아직도 탐라국의 전통을 보전하고 있다는 뜻이오.¹⁹⁰⁾ / 이 말에 최 주사는 펄쩍 펄 듯이 놀란 얼굴로,¹⁹¹⁾

“월, 형님도, 탐라국이라뇨? 우리 섬 백성들도 어엿한 폐하의 적자인데¹⁹²⁾…… 다만 섬 땅이 척박하여 세곡마련이 어렵기로 대신 진상물로 백성 된 도리를 하고 있는 것¹⁹³⁾뿐입니다.”

“하하, 최 형, 꽤나 몸을 사리는군. 내가 최 형을 반역죄로 받고할까 봐 그러시오? 하하하.”

나기주가 이렇게 꺾꺾 호탕하게 웃고 최 주사는 고개를 숙인 채 난처한 듯 뒷머리를 긁었다.

“가까이 방성칠란만 봐도 알지 않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섬 백성들 마음 한구석엔 옛날 탐라국 시절의태평성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은연중 있는 거요.”¹⁹⁴⁾ ▶ **진상을 이유로 나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냄.**

이때 운양 대감의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이번 민회(民會)에 다른 세폐와 진상의 폐는 거론할지언정¹⁹⁵⁾ 왕세만은 시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여. 왕세를 거역함은 국왕을 거역함이니!¹⁹⁶⁾”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하고 최 주사가 머리를 조아렸다.¹⁹⁷⁾

▶ **민회가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한 비판으로만 한정됨**

1. 갈래 : 현대 소설, 장편 소설, 역사 소설
2. 성격 : 사실적, 비극적
3. 배경 : 시간-조선 말, 공간-제주도
4. 시점 : 3인칭 시점 (객관적 거리 유지)
5. 제재 : 조선 말기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란
6. 주제 : 민중의 저항과 좌절

<특징>

- 거남운동으로 제주도에서 시작된 민란이 반봉건적 의거와 천주교 박해로 발전 되는 과정을 보여줌.
- 역사학계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방성칠난과 신축제주항쟁에 대해 다룸.

185) 나기주와 최 주사의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그들이 위협해질 수 있음을 우려함.

186) 지세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는 이유 ①

187) 지세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는 이유 ②

188) 대감의 말에 대한 반박: 일부 진상을 제외한 여러 진상들이 여전히 세금의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함.

189) ‘진상’의 근본적인 목적을 상기시켜 진상과 지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것이 부당한 일임을 지적함.

190) 지세 부과에 대한 비판이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

191) 나기주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최 주사

192) 제주가 탐라국의 전통을 잇는다는 나기주의 말에 대한 반박.

193) 제주의 진상과 속방에서 바치는 진상의 성격이 다름을 지적함.

194) 나기주는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조정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

195) 세 부담의 과중함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으로 제한함.

196) 과세에 대한 비판이 국가에 대한 반역의 의도로 비춰지는 것을 단속함.

197) 상대방에게 존경의 뜻을 보이거나 애원하느라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자꾸 숙이다.

■ 등장인물

- 나기주 : 과도한 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 외세의 침탈로 어려워진 국가의 재정을 세금으로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최 주사 : 제주에 진상이 있음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인물. 외세에 의해 국가의 이권이 침탈되는 상황에 조정 대신들이 사육을 챙긴다고 생각하고 있음.
- 운양 대감 : 과도한 세 부담의 불만이 국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칼의 노래 - 김훈

혼절¹⁹⁸과 혼절 사이에서 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위관¹⁹⁹의 질문은 답변을 미리 예비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었다. 위관은 집요했으나, 아무것도 묻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뿐이었다. 임금은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고 나를 살려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었다.²⁰⁰

히데요시가 전 일본의 군사력을 휘몰아 직접 군을 지휘하며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풍문²⁰¹ 앞에 조정은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다. 나를 죽이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²⁰² 임금은 나를 풀어 준 것 같았다. 그러므로 나를 살려 준 것은 결국은 적이였다. 살아서, 나는 다시 나를 살려 준 적 앞으로 나아갔다. 세상은 뒤엎켜 있었다. 그 뒤엎킴은 말을 걸어 볼 수 없이 무내용했다.²⁰³

의금부에서 풀려난 뒤부터, 추운 날에는 허리가 결렸고 왼쪽 무릎이 시리고 쭈셨다. 무릎이 시릴 때, 두 다리가 땅을 밟지 못하는 것처럼 얼얼했다. 뺨속의 구멍으로 찬 바닷바람이 드나드는 듯싶었다. 뺨속을 드나드는 바람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임금의 숨결이며 기침 소리처럼 느껴졌다. 내 어깨에는 적이 들어와 살았고, 허리와 무릎에는 임금이 들어와 살았다.²⁰⁴ 활을 당겨 표적을 겨눌 때 나는 내 어깨에 들러붙은 적을 느꼈고 칼의 세(勢)를 바꾸려고 몸을 돌릴 때 나는 내 허리와 무릎 속에서 살고 있는 임금을 느꼈다. 시린 무릎으로 땅을 온전히 딛지 못할 때도 내 몸은 무거웠다. / 적과 임금이 동거하는 내 몸은 새벽이면 자주 식은땀을 흘렸다. 구들에 불을 때지 않고 자는 밤에도 땀은 흘렸다.

▶ **왕명을 거역했다는 모함 때문에 의금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는 이순신.**

(중략)

다시 날이 밝았다.²⁰⁵ 바다는 고요했다. 포위망을 조이면서 적에게 다가갔다. 대열의 계통을 버리고, 적들은 산개²⁰⁶했다. 적들은 개별적 철수를 시도했다. 적들은 바다 가득히 뿔뿔이 흩어졌다. 적들의 깃발이 어지럽게 뒤엎졌다. 적들은 내 포위망 사이사이로 파고들었다. 내 포위망은 교란되었다. 교전하는 함대 사이로 적선들은 한 척씩 빠져나갔다.

▶ **날이 밝아오자 개별적으로 철수를 시도하는 적군.**

적들은 계통 없이 달려들었다. 멀리 떨어진 내 전선들이 깃발 신호를 받지 못했고, 신호는 전달되지 않았다.²⁰⁷ 함대 전체를 통제할 수 없었다. 각 방면별 수령들에게 지휘권을 넘겼다. 나는 중군(中軍)²⁰⁸만을 인솔하고 적의 진로 맨 앞으로 나아갔다. 전투는 난전(亂戰)²⁰⁹으로 돌입했다. 진은 무너지고 대열은 흩어졌다. 지휘 통제는 작동되지 않았다. 한

198) 정신이 아찔하여 까무러침.

199) 죄인을 신문할 때에, 의정대신 가운데서 임시로 뽑아 임명한 재판장

200) 임금은 사직의 보존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01)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소문이 남.

202) 나를 살려줘야 나에게 적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203)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이순신장군의 마음을 알 수 있다.

204) 어깨에는 적과의 전투에서 얻은 부상의 흔적을, 허리와 무릎에는 고문으로 인한 통증을 가지고 있음.

205) 전쟁이 며칠째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음.

206) 여럿으로 흩어져 별림.

207) 적들의 교란작전으로 아군의 체계가 흔들려 통제가 어려워짐.

208) 예전에, 전군(全軍)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던 중심 부대

척이 닳치는 대로 한 척씩을 붙잡아 들러붙었다. 모든 한 척이 전방위의 사선(射線)²¹⁰에 노출되어 있었다. 수평선 쪽의 적들도 마찬가지로였다. 기나긴 하루였다. 시간은 정지한 듯 더디었다.²¹¹ 바다는 쓰레기에 덮였다. 화약 연기와 벗짚이 타는 연기에 뒤덮여, 먼 싸움은 기억 속의 싸움처럼 희미했다.

『불붙은 적선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와서 내 대장선의 고물²¹²을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병들의 시체가 노와 노 사이에 끼어 으깨졌다. 물에 뜬 적병들의 시체를 헤치면서 또 다른 적선이 불길을 날리며 달려와 대장선을 들이받고 깨어졌다. 적들은 사망에서 들이닥쳤다.』²¹³ ▶ **철수하는 적들과의 난전이 이어짐.**

다시 날이 저물었다.²¹⁴ 해 지는 쪽의 먼 섬들이 석양에 빛났다. 화약 연기 속으로 노을이 스몄다. 바람은 잠들었다. 격군²¹⁵들은 기진맥진했다. 사흘 밤을 재우지 못했다. 적선 백여 척이 관음포 안 내항으로 달아났다. 거기는 퇴로가 없는 물목²¹⁶이었다. 적들은 항로를 오인했던 모양이다.

나는 중군을 몰아 관음포로 향했다. 거기서 포구의 어귀를 막고 안쪽을 찌를 판이었다. 적선 두 척이 내 대장선 앞뒤로 달려들었다. 뒤쪽에서 중군장이 달려 나와 앞에서 달려드는 적선을 막았다. 나는 대장선 장대에서 소리쳤다.

— 관음포가 급하다. 관음포로 가자.

난간에 도열²¹⁷한 적들이, 일제히, 무더기로 쏘아 댔다.

▶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며 항로를 오인한 적들을 따라 관음포로 가고 있음.**

갑자기 왼쪽 가슴이 무거웠다.²¹⁸ 나는 장대 바닥에 쓰러졌다. 군관 송희립이 방패로 내 앞을 가렸다. 송희립은 나를 선실 안으로 옮겼다. 고통은 오래전부터 내 몸속에서 살아왔던 것처럼 전신에 퍼져 나갔다. 나는 졸음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꼈다.²¹⁹

— 지금 싸움이 한창이다. 너는 내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라.²²⁰

내 갑옷을 벗기면서 송희립은 울었다.

— 나으리, 총알은 깊지 않습니다.²²¹

나는 안다. 총알은 깊다. 총알은 임진년의 총알보다 훨씬 더 깊이, 제자리를 찾아서 박혀 있었다.²²² 오랜만에 갑옷을 벗은 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 서늘함은 눈물겨웠다. 팔다리가 내 마음에서 멀어졌다. 몸은 희미했고 몸은 멀었고, 몸은 통제되지 않았다.²²³

— 복을…… 계속…… 올려라. 관음포…… 멀었느냐?²²⁴

송희립은 갑옷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복을 올렸다.

▶ **적의 총을 맞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아군을 지휘 통제하는 이순신.**

난전은 계속 중이었다. 싸움의 뒤쪽 아득한 바다 위에서 노을에 어둠이 스미고 있었다.²²⁵ 적선을 태우는 불길이 바다 곳곳에서 일었다. 등판으로 배의 흔들림이 느껴졌다. 격군들은 관음포를 향해 저어 가고 있었다.

싸움터를 빠져나가 먼바다로 달아나는 적선 몇 척이 선창 너머로 보였다. 밀물이 썰물로 바뀌는 와류²²⁶ 속에서 적병들의 시체가 소용돌이쳤다. 부서진 적선의 파편들이 뱃전에 부딪혔다. 나는 심한 졸음²²⁷을 느꼈다.

209) 전투나 운동 경기 따위에서, 두 편이 마구 뒤섞여 어지럽게 싸움

210) 쏜 탄알이나 화살이 지나가는 선.

211) 오랜 전투로 심신이 지쳐있음.

212) 배의 뒷부분

213) 『』: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로 최후의 전투에 임하는 적군.

214) 날이 경과한 것을 알 수 있다.

215) 조선 시대에, 사공(沙工)의 일을 돕던 수부(水夫).

216) 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나가는 어귀.

217) 많은 사람이 죽 늘어섬. 또는 그런 대열.

218) 적의 총알을 맞음.

219)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낌.

220) 이순신의 평소 품성을 알 수 있음.

221) 거짓말로 이순신을 안심시키려는 송희립.

222) 부상이 임진년에 사천 전투에서도 총알을 맞았던 부상보다 심각함.

223) 죽음이 다가오자 팔 다리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표현함.

224) 이순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음을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나타냄.

225) 시간이 경과했음을 보여줌.

226) 물이 소용돌이치면서 흐름. 또는 그런 흐름

227) 죽음이 더 가까워 졌음을 보여줌.

내 시체를 이 쓰레기의 바다²²⁸⁾에 던지라고 말하고 싶었다. 졸음이 입을 막아 입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 바람결에 화약 연기 냄새가 끼쳐 왔다. 『이길 수 없는 졸음 속에서, 어린 면의 젖 냄새와 내 젊은 날 함경도 백두산 밑의 새벽안개 냄새와 죽은 여진의 몸 냄새가 떠올랐다. 멀리서 임금의 해소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냄새들은 화약 연기에 비벼지면서 멀어져 갔다.』²²⁹⁾ 함대가 관음포 내항으로 들어선 모양이었다. 관음포는 보살의 포구인가.²³⁰⁾ 배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창 너머로 싸움은 문득 고요해 보였다.

세상의 끝이……²³¹⁾ 이처럼…… 가볍고…… 또…… 고요할 수 있다는 것이……, 칼로 베어지지 않는 적들²³²⁾을…… 이 세상에 남겨 놓고…… 내가 먼저……, 관음포의 노을이…… 적들 쪽으로…….

▶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이순신.

- 김훈, 「칼의 노래」

1. 갈래 : 장편 소설, 역사 소설
2. 성격 : 사실적, 역사적, 전기적
3.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4. 배경 : 시간-1597~1598년/ 배경-조선
5. 제재 :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겪은 고초와 전쟁
6. 주제 : 이순신 장군의 삶의 자세와 고뇌

<특징>

- 전투 장면을 속도감 있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간결한 문체를 사용함.
-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됨.
-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허구가 혼재되어 있음.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주인공의 고뇌와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줌.
- 모순 어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드러냄.

228) 전쟁의 참상을 나타내기 위해 시체와 전쟁의 잔해를 쓰레기에 비유함.

229) 『』: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억과 감각이 떠오름.

230) '관음포'와 '관세음보살'의 음이 비슷함을 연관 지어 생각함.

231)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비장함과, 이순신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과정을 보여줌.

232) 전쟁에 나가 직접 싸울 수 있는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을 가리킴.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신영복

오늘은 당신²³³⁾이 가르쳐 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²³⁴⁾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더러는 500년의 풍상(風霜)²³⁵⁾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을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였습니다.²³⁶⁾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²³⁷⁾과는 달리 오직 ‘신발한 쥘레의 토지’²³⁸⁾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²³⁹⁾이 충격이고 경이였습니다.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소광리의 솔숲²⁴⁰⁾은 마치 희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²⁴¹⁾ 같았습니다.²⁴²⁾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려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²⁴³⁾.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²⁴⁴⁾ 『사실 서울에서는 그²⁴⁵⁾보다 못한 것을 그보다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²⁴⁶⁾ 언젠가 경복궁 복원 공사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한 조선정궁의 기본 궁제(宮制)²⁴⁷⁾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²⁴⁸⁾을 반성하게 됩니다.』²⁴⁹⁾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²⁵⁰⁾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르면 고난에 찬 몇 백만 년의 세월²⁵¹⁾을 잘라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 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²⁵²⁾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 내고 있는가 하면 ²⁵³⁾아예 사람을 잘라 내는 일²⁵⁴⁾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²⁵⁵⁾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 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²⁵⁶⁾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²⁵⁷⁾이 이 소광리에서만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합니다.

233) 엽서를 받는 대상, 독자 혹은 그 밖의 특정대상.

234) 편지글 형식, 독자의 흥미를 유발과 소통 가능.

235) 바람과 서리,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

236) 묵묵히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에게 느끼는 감탄과 경외감.

237) 나무와 대조되는 존재.

238)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협소한 땅.

239) 인간과 대조되는 존재

240) 화자가 성찰하게 되는 매개

241) 소광리의 솔숲

242)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깨달음과 교훈을 줌

243) 별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뜻

244) 소나무도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는 의미

245) 별 또는 소나무

246) 『 』, 현실 비판적 태도

247) 궁궐의 형태

248) 경복궁 복원이 당연하다는 생각

249) 경복궁 복원 공사에 대한 비판적 생각과 소나무를 베는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성찰

250) 인간의 욕심으로 소나무를 잘라내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

251) 시련을 이겨낸 소나무의 세월, 삶의 역사를 잘라 내는 것과 같음

252) 현실에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들로 확장

253) 인간의 이기심으로 자연을 파괴

254) 사람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세태 비판

255) 생산 없이 소비만 하는 인간 비판

256) 폭력적 소비의 주체에서 소비의 대상이 되어 소비에 매몰된 인간 비판

257) 자연을 생산요소로만 생각하는 인간비판, 뒤이은 ‘아카시아와 활엽수’ 연관

산판일²⁵⁸⁾을 하는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 낸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잘린 부분에서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²⁵⁹⁾ 온 산천²⁶⁰⁾의 아우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을 겪어 온 혈육 같은 나무입니다.²⁶¹⁾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²⁶²⁾에 솔가지를 꽂아 부정을 물리고 사람이 죽으면 소나무 관 속에 누워 솔밭에 묻히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 하였습니다.』²⁶³⁾ 그리고 그 무덤 속의 한을 달래 주는 것이 바로 은은한 솔바람입니다.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高節)²⁶⁴⁾의 상징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금강송의 곧은 둥치²⁶⁵⁾에서뿐만 아니라 암석지의 굽고 뒤틀린 나무에서도 우리는 곧은 지조²⁶⁶⁾를 읽어 낼 줄 압니다. 오늘날의 상품 미학²⁶⁷⁾과는 전혀 다른 미학을 우리는 일찍부터 가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²⁶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²⁶⁹⁾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²⁷⁰⁾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섬에 갇혀 목말라하는 남산의 소나무²⁷¹⁾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²⁷²⁾을 달고 있다』²⁷³⁾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짝을 키울 땅마저 황폐²⁷⁴⁾해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²⁷⁵⁾의 침습(侵襲)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 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 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²⁷⁶⁾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²⁷⁷⁾처럼 산을 나왔습니다.』²⁷⁸⁾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²⁷⁹⁾』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²⁸⁰⁾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²⁸¹⁾을 신뢰해야 합니다.

1. 갈래 : 현대 수필, 서간체 수필
2. 성격 : 비판적, 사색적, 성찰적, 반성적
3. 제재 : 소광리 소나무 숲의 소나무
4. 주제 : 이기심과 욕구를 위해 무차별적 소비를 하는 현대인들 비판, 현대 사회의 비정한 세태 비판

258) 별목 등을 하는 곳에서 나무를 베어 내는 일

259) 설의법 (자연을 파괴하면 그 피해가 인간에게도 미침)

260) 대유법 (자연)

261) 의인화

262) 부정(不淨)을 막기 위해 문이나 길 어귀에 매는 새끼줄

263) 『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궤적에 소나무의 자취가 있음

264) 높은 절개

265) 큰 나무의 밑동

266) 뒤이은 오늘날의 상품미학과 대조되는 가치

267) 고절과 지조의 상징인 소나무와는 대조적인 소비 대상으로서의 가치

268)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대상 (온갖 풍상을 이겨낸 강인함과 소비에 매몰 되지 않은 높은 절개를 지닌 사람)

269) 소나무 같은 사람

270) 도시의 소비 지향적 삶을 사는 사람

271) 소비적인 도시 문명에 힘겨워 하는 소나무들

272) 소나무의 의지, 짝을 틔우려는 희망

273) 『 』, 도시에 있는 소나무들이 자연 속 소나무 보다 솔방울이 많다

274) 자연이 파괴됨

275) 소나무와 생존을 경쟁하는 나무, ‘경제학의 폭력성’ 상징

276) 무한경쟁에 처해 있는 인간 사회의 문제점 (경제학의 폭력성)

277) 솔숲에서 얻은 깨달음으로 반성하는 글쓴이

278) 『 』, 첫 번째 문단에서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과 유기적으로 연결

279) 디오니소스 관련된 그리스신화

280) 소나무의 후손, 생명력

281) 재생의 상징

<서술상의 특징>

- 경어체 및 서간체(편지글) 형식으로 서술하여 독자에게 흥미와 친근감 유발
- 독자를 '당신' 이라는 2인칭 대상으로 설정해 작가와 독자 간의 거리를 좁힘
-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내용상의 특징>

-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인간 세상으로 확장하고 있음
- 평범한 소재인 '소나무'를 사용하여 자신의 가치관과 깨달음을 전달
- 소비에 매몰된 인간과 대조적인 존재로 '소나무'를 설정하여 성찰을 하게 함
- 구체적인 체험을 제시하여 현대 사회를 비판
-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표현

이재수의 난 - 현기영 원작/박광수 외 각색

S# 72. 제주성 안 교당 (낮)

채 군수: (벌컥 성을 내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관장의 허락도 없이 무기고를 열다니 요,282 이곳 제주는 엄연히 대한 제국의 영토입니다.

구 신부: (못마땅한 얼굴로) 사또께선 무얼 하시는 분이오? 진작에 해산되었어야 할 폭도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²⁸³도 못 들었소?

채 군수: 그거야 교당 측이 무장도 하지 않은 민당들을 습격한 것²⁸⁴ 때문 아니오? 화해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서 그런 법이 어디 있소?²⁸⁵

▶ 구 신부 측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는 채군수

최 선달: (발끈하여) 아니 사또 나오리, 난리를 진압할 책임이야 실은 사또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또가 못하시니까 우리가 대신 나선 것을 이제 와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²⁸⁶

채 군수: (성을 내며) 이놈! 군마로 관부를 범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목을 베라 하였다. ²⁸⁷대정군 관아를 난장 박살 낸 게 니놈이 한 짓인 줄 모를 줄 아느냐!

▶ 문제 상황의 책임을 채 군수에게 전가하는 최 선달

구 신부: (꾸짖는 태도로) 최 선달!²⁸⁸

최 선달: 죄송합니다. 신부님.²⁸⁹

구 신부: 사또 너무 쾌념치 마시오. 어쨌거나 난리를 진압 못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할 뻔한 걸 우리가 구해준 셈 아니오. 그러니 과거사는 묻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협력해야 하오.²⁹⁰ 폭도들이 동서 양진으로 나눠 며칠 후면 이곳으로 들이닥칠 거라 하는데 그 무지한 것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떠난 김 군수마저 감감무소식입니다. 나는 나대로 법국 군함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 놓았으니²⁹¹ 사또께서도 뭔가 할 일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소?

282) 공권력의 약화와 외세의 침탈이 있음을 보여줌.

283)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외부 요인으로 화제를 전환함.

284) 문제 상황의 본질적인 원인이 구 신부 측의 행동에 있음을 지적함.

285) 구 신부 측이 백성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음을 비판함.

286) ①공권력이 약해진 현실을 나타냄. ② 채 군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문제 상황의 원이라고 지적함.

287) 법으로 상대방의 비판을 반박하지만, 실제로는 공적 권위인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

288) 겉으로는 채 군수의 권위를 존중함.

289) '채 군수'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약화를 재확인해 줌.

290) 현실적인 상황을 이유로 상호 간에 협력할 것을 제안함.

채 군수: (단호하게) 구 신부! 그것만은 안 됩니다. 법국 군대가 제주섬에 들어오는 날엔 피아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²⁹²⁾

▶ 채 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구 신부

(중략)

S# 83. 군막 안

채 군수: 놈들이 명월진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 불이라도 삼키고 싶겠지만, 생각해 보시오. 신부들이 벌써 법국 군함과 군대를 부르러 보냈는데, 그들이 이 섬에 들어오는 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소? 작년 청국에서 의화단 사람들이 성교 신부들과 신자들을 살해했다가 어떤 결말이 났는지.²⁹³⁾ 『법국이며 서양각국들이 제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군대를 보내 대량 살육을 하고 급기야는 땅과 이운을 차지한다고 청국을 갈라 먹고 있지 않소.』²⁹⁴⁾ 법국 함대가 지금 태고*에 있는데 삼 일이면 제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²⁹⁵⁾

마찬삼: 사또, 우리가 싸우지 않고 물러간다고 이 섬이 온전할 성싶소?²⁹⁶⁾ 저 폭도들을 그냥 두면 이 섬은 온통 법국 천지가 될 거외다. 우리가 안 싸워도 법국 세상이요, 싸워도 법국 세상이라면 우린 싸워서 원풀이를 해야 하겠소이다.²⁹⁷⁾ 제주성 동쪽에 진을 친 동진의 강우백 장두* 어른도 우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오달문: 사또 어른, 왜 법국 군함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미 피를 본 백성들은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저 백성들을 통솔하자면 똑같이 눈알이 뒤집혀야 합니다.

▶ 외세와 외세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저항할 의지를 굽히지 않는 민란세력

채 군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재수를 바라본다.²⁹⁸⁾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채 군수는 답답한지 깊은 한숨을 내신다. 고개를 들어 채 군수를 쳐다보는 이재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²⁹⁹⁾ 이재수는 채 군수의 발치로 와 무릎을 꿇는다.³⁰⁰⁾

이재수: 채 군수 어른,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채 군수: 아니 왜 이러시오?

이재수: 미천한 소인이 군수 어른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감히 장두로 나섰습니다.

채 군수: (이재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³⁰¹⁾ 일어나시게, 자네는 이미 내 종복이 아닐세. 장두가 이러면 되겠나.

마찬삼: 이 장두 어서 일어나시게. 자네는 장두가 아닌가.

하지만 제자리에 꼼짝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이재수: 채 군수 어른. 관노(官奴)인 소인이 비천한 신분으로 장두에 나선 것은 짧은 객기가 영웅 소릴 듣고 뜬 야욕 때문이 아니우다. 죽지 못해 사는 우리 백성들을 봅서게.³⁰²⁾ 성을 공격하면 지금 당장은 피를 보겠지만, 이대로 흘러진다면 자자손손 더욱 많은 피를 볼 것이우다.³⁰³⁾ 소인은 불쌍한 제주민들이 이번 난리로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이 미천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우다.

이재수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 섞인 고통의 소리로 변해 가고,³⁰⁴⁾ 내려다보는 채 군수의 눈도 붉게 충혈된다.³⁰⁵⁾

291) 민란을 빌미로 외세가 침입할 빌미가 생김.

292) 외세의 침탈로 인한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함.

293) 법국 군대의 침입의 우려를 과거의 본보기를 들어 나타냄.

294) 『』: 국제 정세를 들어 제국주의적 침탈이 만연한 현실을 지적함.

295)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지적함.

296) 법국 군대의 침탈이 민란과는 관계없이 자행될 것임을 예측함.

297) 외세의 침탈에 대한 대항 의지를 밝힘.

298) 제주민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을 걱정하는 채 군수

299) 채 군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면에서 이재수의 인간적인 면모가 나타남.

300) 채 군수에게 예의를 지키며 의견을 토로하는 이재수.

301) 이재수와 그 무리의 뜻에 대한 존중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보여줌.

302) 심각한 수탈에 고통당하는 민중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나타냄.

303) 부당한 대우를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 민란을 일으킨 것임을 밝힘.

304) 막중한 책임감과 부당한 현실의 고통으로 인한 슬픔.

- 현기영 원작 / 박광수 외 각색, 「이재수의 난」

*태고: 따구. 북경과 천진으로 가는 입구가 되는 항구. 의화단의 난 때 서양 군대가 집결한 지역.

*장두: 예전에, 여러 사람이 서명한 소장(訴狀)이나 청원장(請願狀)의 맨 첫머리에 이름을 적는 사람.

1. 갈래: 시나리오
2. 배경: 시간-1901년, 공간-제주도
3. 제재: 실제 사건인 이재수의 난
4. 주제: 이재수의 항쟁과 좌절.

<특징>

- 대화를 통한 인물들의 상황 제시.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대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줌.

- 갈등: S#72의 갈등양상 : 채 군수 ↔ 구 신부 (외세의 개입에 따른 이견)

S#82 채 군수(외세의 개입에 따른 피해를 걱정함) ↔ 마찬삼, 오달문(우려는 되지만 물러날 수 없음), 이재수 (채 군수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과 희생이 불가피함을 강조함.)

305) 제주민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련하게 생각하는 채 군수.

「가마귀 가마귀를 좇츠 ~」- 작자미상

가마귀³⁰⁶ 가마귀³⁰⁷를 『좇츠 들거고나³⁰⁸ 뒷동산(東山)³⁰⁹에』³¹⁰

느러진³¹¹ 고양남개³¹² 휘 드느니³¹³* 가마귀로다³¹⁴

『식은 날³¹⁵ 못³¹⁶ 가마귀 흔디³¹⁷ 느려 뒤덤병* 덤병³¹⁸ 두루 덥져겨* 박흐니³¹⁹ 아모 그 가마귀³²⁰ 줄 물니라
321』³²²)

*휘 드느니: 휘 날아드니.

*뒤덤병: 들뜬 행동으로 아무 데나 간섭을 하며 서두름.

*덥져겨: 덥적여. 무슨 일이나 가리지 않고 자꾸 참견하여.

1. 갈래 : 사설시조
2. 성격 : 풍자적, 해학적
3. 제재 : 까마귀
4. 주제 : 벼슬자리를 두고 싸우는 탐관오리를 풍자, 부화뇌동(附和雷同)의 경계

<표현상의 특징>

-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개탄
- ‘뒤덤병덤병’ 같은 의태어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벼슬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싸우는 탐관오리의 모습을 희화화하여 생동감 있게 묘사

<내용상의 특징>

- 자연물을 사용하여 현실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비판
- 까마귀 떼가 싸우는 모습을 묘사하여 까마귀처럼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비판의식을 드러냄.

306) 새로 날아든 까마귀, 탐관오리, 간신배

307) 뒷동산에 원래 있던 까마귀

308) 추종하는 구나, 기득권을 빼앗으려 하는 구나. 부화뇌동(附和雷同)

309) 공간적 배경(까마귀들이 모여드는 공간)

310) 『』: **도치법**(서술어와 부사의 자리가 바뀜)

311) 늘어진. 가지가 늘어질 정도로 큰 나무.

312) 괴향나무, 먹잇감이 있는 곳, 이권(정권이나 벼슬)을 쟁탈하기 위해 다투는 곳으로 ‘조정’을 상징

313) 마구 들어오는 모습, ‘휘’를 ‘매우, 심하게, 마구’란 뜻의 접두사로 보는 것이 적절

314) 우위적 의미로 이권(利權)을 다투는 사람들의 무리

315) 새로 밝은 날, 다음 날

316) **많은**

317) **한 곳에**, 같은 목표를 두고

318) **의태어, 음성상징어**

319)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서로 참견하며 싸우는 모습

320) 새로 날아든 까마귀

321) 싸우고 있는 모든 무리가 같은 통속임이 드러남

322) 『』: 벼슬자리를 두고 싸우는 모습, 부화뇌동(附和雷同)

「가마귀 겹다 희고 ~」- 작자 미상

가마귀³²³ 겹다 희고 백로(白鷺)³²⁴ | 야 웃지 마라
 겹치 거문둥 속조차 거물소냐³²⁵
 아마도 겹 희고 속 검은 **너**³²⁶뿐인가 희노라³²⁷

1.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2. 성격 : 풍자적, 교훈적, 비판적, 충절가
3. 연대 : 고려 말, 조선 초
4. 제재 : 까마귀, 백로
5. 주제 : 인간의 위선(표리부동)에 대한 경계, 소인에 대한 훈계와 자신의 결백 표명

<표현상의 특징>

- 의인법을 사용,
- 검은 까마귀와 하얀 백로의 대조를 통해 겹만 보고 남을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는 의도를 드러냄.

<내용상의 특징>

- 화자는 고려 유신의 한 사람으로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

323) 긍정적인 내면을 가진 존재(조선 개국공신인 화자 본인)

324) 부정적 심성을 가진 존재(화자를 비방하는 무리)

325) 화자의 결백성을 표명

326) 백로

327) **의인법**(백로의 외형적인 속성이 아니라 내면적인 이중성을 위선적이라 비판)

「가마귀 싸호는 골에 ~」- 작자미상

가마귀³²⁸ 싸호는 골³²⁹에 백로(白鷺)³³⁰ | 야 가지 마라³³¹

성년 가마귀³³² 흰빛³³³을 새올세라³³⁴

청강(淸江)³³⁵에 잇것³³⁶ 시슨 몸³³⁷을 더러일가 흐노라³³⁸

1. 갈래 : 고시조, 평시조, 단시조
2. 성격 : 경세(警世)적, 우의적, 교훈적
3. 연대 : 고려 말
4. 제재 : 까마귀, 백로
5. 주제 : 군자(君子)로서의 절의(節義), 표면적 차이에 대한 경계

<표현상의 특징>

- 깨끗함(군자의 지조)을 지키기 위해 까마귀(악한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 것을 권고
- 자연물인 대상의 특성에 빗대어 효과적으로 경계의 의미 표현

<내용상의 특징>

- 이분법적인 사고와 흑백논리로 까마귀를 부정적으로 인식
- 대비되는 단어의 나열로 화자의 염려와 경계를 표현

328) 부정적 세력 혹은 인물(이성계)

329) 싸움터, 부정적인 공간

330) 긍정적인 세력, 군자, 충절자 (정몽주)

331) 까마귀(흑)와 백로(백) 라는 관습적인 상징물의 색채대비 효과를 통해 이전투구(泥田鬪狗 :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툼을 비유)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흑백논리(흑-부정, 백-긍정), 이분법적 사고

332)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

333) 선비의 지조, 절개

334) 시샘할까 두렵구나. ‘르 세라’ : 의구형 어미

335) 맑은 강, 순수하고 긍정적인 공간. 초장의 ‘골’ 과 대비 됨

336) 깨끗이

337)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군자의 도(道),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비유적으로 표현

338) 근묵자흑(近墨者黑), 근주자적(近朱者赤) 까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경계

「논매기 노래」- 작자 미상

잘하고 **자로**³³⁹⁾ 하네 **에히요**³⁴⁰⁾ 산이*가 자로 하네³⁴¹⁾

이봐라 농부야 내 말 듣소 이봐라 일꾼들 내 말 듣소³⁴²⁾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하늘님이 주신 보배 **편편옥토**(片片沃土)³⁴³⁾가 이 아닌가³⁴⁴⁾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물꼬³⁴⁵⁾ 찰랑 돌아 놓고 ³⁴⁶⁾진네 영감 어디 갔나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한다 소리를 퍽 잘하면 질 가던 행인이 질 못 간다³⁴⁷⁾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우리야 일꾼들 자로 한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이 **논배미**³⁴⁸⁾를 얼른 매고 저 논배미로 건너가세³⁴⁹⁾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담송담송³⁵⁰⁾ 닷 마지기 반달만치만 남았구나³⁵¹⁾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일락서산(日落西山)에 해는 지고 월출동령(月出東嶺)에 달 돈는다³⁵²⁾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한다³⁵³⁾

잘하고 자로 하네 에히요 산이가 자로 하네³⁵⁴⁾

339) 잘, 자주

340) 흥을 돋우는 감탄사

341) 후렴구로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342) 선창자 '산이'가 노래를 먼저 부르면서 일꾼들의 관심을 유도

343) 편편옥토(片片沃土) : 어느 논밭이나 다 비옥함

344) 농사일에 대한 천직이라는 낙천성과 하늘에서 내린 땅을 경작한다고 여기는 자부심이 드러남

345) 눈에 물이 넘어 들어오거나 나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좁은 통로

346) 눈에 물을 가득 담아 놓아 물이 풍부하니 농토가 비옥하고, 농사가 잘되고 있음을 의미

347) 일은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서 잘한다 소리(후창)만 열심히 하면 길 가던 행인이 길을 잘못 간다.→ 말보다 행동으로 김을 매라는 독려이자 행인이 가던 길을 멈출 정도로 노래가 흥겨움을 과시하는 것으로 논매기 노래의 흥겨움 표현

348) 두령으로 둘러싸인 논이 하나하나의 구역

349) 일을 부지런히 하자는 독려 및 서로의 것을 같이 하는 상부상조(相扶相助)

350) '드문드문'의 방언. 드물고 성긴 모양. '드문드문'이라는 의태어를 방언으로 표현하여 향토적인 느낌과 리듬감, 경쾌한 느낌을 준다.

351) 작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각적으로 표현, 일을 빨리 끝내자는 독려

352) 시간의 흐름을 중복 표현(한자어를 우리말로 다시 한 번 풀어 줌)을 통해 나타내어 부지런히 일해 김매기를 빨리 끝내자는 것을 강조함

353) 선창자의 매기기(메기다 : 두 편이 노래를 주고받고 할 때 한편이 먼저 부른다.)

잘하고 못하는 건 우리야 일꾼들 솜씨로다³⁵⁵⁾

*산이: 원래는 광대나 재주꾼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 노래에서는 선(先)소리꾼을 의미함.

1. 갈래 : 민요, 노동요
2. 성격 : 낙관적, 낙천적
3. 형식 : 선후창요(先後唱謠), 돌림 노래
4. 제재 : 논매기
5. 주제 : 농사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 농민으로서의 자부심

<표현상의 특징>

- 선창 후창의 연장형식으로 선창이 2장단이나 4장단의 앞소리를 부르면 후창으로 후렴격인 뒷소리를 부름
- 노래의 속도는 일의 진행에 따라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하여 차차 빨라지는 변화를 보임
- 3·4조, 4음보의 일정한 율격과 후렴구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흥을 돋움
- 반복적이고 열거적인 시구를 통해 농사일을 독려하는 기능을 한다.

<내용상의 특징>

- 민중의 현실 정서를 반영하는 민요의 특성이 드러나 있음
- 논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로 동일한 후렴구를 두어 리듬감을 살리고, 주 내용은 선창 부분에 표현
- 농토의 예찬, 농사일의 진행과 독려 등을 차례로 노래하고 현재 일에 대한 농사꾼들의 자부심 드러냄
- 농민들의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정서가 나타남

354) 후창자의 받기

355) 농사꾼들의 솜씨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뉘라셔 까마귀를 ~」- 박효관

뉘라셔 **까마귀**³⁵⁶⁾를 검고 **흉(凶)타** **호**뉘³⁵⁷⁾
 반포보은(反哺報恩)³⁵⁸⁾이 괴 아니 아름다온가
 슝름이 저 식만 못호물 못너 슬허호노라³⁵⁹⁾

1. 갈래 : 평시조, 단시조, 정형시
2. 성격 : 경세가(警世歌)
3. 제재 : 반포보은(反哺報恩)
4. 주제 : 인간의 불효에 대한 탄식

<표현상의 특징>

- 3(4)·4조, 4음보의 율격
- 까마귀를 제재로 하여 효의 미덕이 지켜지지 않는 세태를 한탄
- 자연물과 인간을 대비하여 효의 실천을 강조

<내용상의 특징>

-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음을 까마귀에 빗대어 비판
- 화자는 까마귀에 반포보은의 가치를 부여, 까마귀를 ‘효’의 상징으로 인식
- 불효하는 사람들은 까마귀보다 못하다고 통탄

356) 본받아야 할 대상

357) 세상 사람들의 통념에 대한 비판

358) 다 자란 까마귀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 아버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까마귀의 효심, 반포지효(反哺之孝)

359) 사람과 까마귀를 비교하여 효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백사장 홍료변에 ~」- 작자미상

백사장(白沙場)³⁶⁰ 홍료변(紅蓼邊)³⁶¹에 구버기³⁶²는 * 백로(白鷺)³⁶²들아³⁶³
 구복(口腹)³⁶⁴을 못 메워 더다지 굶니³⁶⁵는다
 일신(一身)이 한가(閑暇)³⁶⁶홀선정 슬져³⁶⁷ 무슴 흐리오³⁶⁸

*구버기³⁶²: 꾸벅이는. 머리를 숙였다 들었다 반복하는

1. 갈래 : 평시조, 단시조
2. 성격 : 세태가(世態歌)
3. 제재 : 백로
4. 주제 : 인간의 세속적 욕심에 대한 경계

<표현상의 특징>

- 대화체의 어조를 사용하여 백로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시상 전개
- 설의법을 사용해 화자의 의도를 강조
- ‘백로’를 의인화해 시상을 전개
- 백사장의 하얀 이미지와 홍료변의 붉은 이미지의 시각적 심상이 백로의 행위를 두드러지게 표현

<내용상의 특징>

- 백로가 ‘구버기³⁶²는’ 행위를 보여주면서 백로의 목적(먹는 것이 급급함)을 드러냄
- 초장에서 색채 이미지로 백로의 모습을 고고한 듯 보이게 하지만 증장에는 결과 대조적인 백로의 본래 모습을 보여 주며 대상을 비판

360) 백색 이미지(흰 모래가 깔려있는 강가)

361) 붉은 빛을 띤 여귀 잎(적색 이미지, 백사장과 색채적 이미지를 형상화 해 고고한 백로의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362) 화자는 백로를 부정적 대상으로 설정하여 겉으로는 고상하나 본래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인식

363) 백로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듯한 대화체의 어조를 사용

364) 입과 배, 먹고 살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곳, 작품에서는 인간의 탐욕을 뜻함

365) 굶혔다 찢다하는 모습을 뜻하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반복적 행위를 말함

366)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

367) 백로의 가치관, 화자의 ‘한가’와 대립됨

368) 설의법

「보리타작[打麥行]」 - 정약용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 처럼 ³⁶⁹⁾ 뿌영고 』 ³⁷⁰⁾	新釀濁酒如滙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 로세 ³⁷¹⁾	大碗麥飯高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 서니 ³⁷²⁾	飯罷取枷登場立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 네 ³⁷³⁾	雙肩漆澤翻日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 니 ³⁷⁴⁾	呼邪作聲舉趾齊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사방에 가득하 네 ³⁷⁵⁾	須與麥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³⁷⁶⁾ 점점 높아지 는데 ³⁷⁷⁾	雜歌互答聲轉高
보이느니 지붕까지 날으는 보리 티끌 ³⁷⁸⁾	但見屋角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 니 ³⁷⁹⁾ 즐겁기 짝이 없 어	觀其氣色樂莫樂
마음이 몸의 노에 되지 않았 네 ³⁸⁰⁾	了不以心爲形役
낙원 ³⁸¹⁾ 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樂園樂郊不遠有
무엇 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 ³⁸²⁾ 에 헤매 리오	何苦去作風塵客

1. 갈래 : 한시, 서정시, 행(行)*, 사실주의시
2. 성격 : 사실적, 반성적
3. 연대 : 조선후기
4. 제재 : 보리타작
5. 주제 : 노동에서 얻는 즐거움과 그에 따른 지난날의 반성 / 농민의 보리타작과 그것을 보고 깨달은 건강한 삶의 모습

행(行) : 자신의 감정이나 사물을 거침없이 가볍게 노래하는 한시의 한 체

<표현상의 특징>

- ‘기-승-전-결’의 4단 구성 형식을 지님.
- 평민의 시어로 농촌의 노동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내 조선 후기 한시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 줌.
-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

<내용상의 특징>

- 다산의 중농 사상과 실사구시의 실학사상이 반영된 사실주의 시 정신을 잘 나타냄
- 보리타작하는 농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현장감이 느껴지게 묘사함.

369) **직유법**

370) 『』, 막걸리의 색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농사를 짓는 모습을 현장감 있게 전달

371) **과장법**

372) 밥을 먹은 후 곧바로 일을 하는 농민들의 근면적인 태도

373) 햇빛에 반짝이는 농민들의 어깨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어 그들의 건강한 삶과 노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나타냄

374) 도리깨질 하는 장면이 흥겹게 묘사됨

375) 부지런한 노동에 대한 보상

376) 선창과 후창 형식으로 노동요를 부르고 있음

377) 흥이 고조됨을 알게 하는 청각적 이미지

378) 막걸리, 보리밥, 도리깨, 보리 낱알, 보리 티끌 모두 보리타작하는 상황을 연상케 하는 일상적 소재들

379) 보리를 타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바라보는 화자

380) 농민의 모습을 보며 몸과 정신이 하나가 된 노동의 참된 가치를 인식하고 삶의 진리를 깨우침

381) 농민들의 삶, 현실을 만족하고 힘겨운 노동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줄 아는 모습

382) 낙원과 대비되는 세속적 욕망, 지난날의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

「어이 못 오던다 ~」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³⁸³⁾

『너 오는 길 우희 무쇠로 성(城)을 빗고 성안해 담 빗고 담 안헤란 집을 짓고 집 안헤란 두지* 노코 두지 안헤 귀(櫃)를 노코 귀 안헤 너를 결박(結縛)하여 노코 쌍(雙)비목* 외겔새에 용(龍)거북 죽물쇠³⁸⁴⁾로 수기수기* 즘갓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³⁸⁵⁾

흔들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흘리 없스랴³⁸⁶⁾

*두지: 뒤주. 쌀 같은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

*쌍비목: 결쇠를 거는 구멍 난 못.

*수기수기: 깊이깊이.

1. 갈래 : 사설시조, 연모가
2. 성격 : 해학적, 과장적, 원망적
3. 연대 : 조선 후기
4. 제재 : 오지 않는 임
5. 주제 : 그리운 임을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야속한 마음

<표현상의 특징>

-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해학과 과장을 통해 표현
- 직설적인 어조로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함
- 반복, 연쇄, 열거, 점강, 과장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애타는 마음과 그리움을 강조

<내용상의 특징>

- 화자는 과장적 상상으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야속한 심정을 드러냄
- 화자는 임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못' 오고 있다고 상상, 임의 변심을 부정하며 자기 위안

383) 임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어함. 구절의 반복으로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 학수고대(鶴首苦待)

384) 성(城) > 담 > 집 > 두지 > 귀(櫃) > 자물쇠 점점 좁아지는 폐쇄적인 공간에 임이 갇히고 속박되어 있어 못 오는 것이라 화자는 상상함

385) 열거, 연쇄, 점강법, 과장법 『 』, 임이 오지 않는 까닭을 여러 사물을 나열하여 그리운 사람의 내방을 막는 여러 가지 제약 을 표현

386) 일 년의 그 많은 시간 중 자신을 보러 올 하루가 없느냐는 직접적인 원망의 표현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정인지 외

해동(海東) 육룡(六龍)³⁸⁷이 낙락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성(古聖)이 동부(同符)하시니³⁸⁸

海東六龍飛 莫非天所扶 古聖同符
 (해동육룡비 막비천소부 고성동부)

<제1장>

불휘 기픈 남근³⁸⁹ 보르매 아니 뭇씨 곶 도코 여름 하느니³⁹⁰
 식미 기픈 므른³⁹¹ 마르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³⁹²

根深之木 風亦不杌 有灼其華 有蕢其實
 (근심지목 풍역불을 유작기화 유분기실)
 源遠之水 旱亦不竭 流斯爲川 于海必達
 (원원지수 한역불갈 유사위천 우해필달)

<제2장>

천세(千世) 우희 미리 정(定)하시 산 한수(漢水) 북(北)³⁹³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시
 복년(卜年)이 궤업스시니³⁹⁴

성신(聖神)이 니스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시샤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라쇼셔 낙수(洛水)예³⁹⁵ 산행(山行)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千世默定 漢水陽 累仁開國 卜年無疆
 (천세묵정 한수양 누인개국 복년무강)
 子子孫孫 聖神雖繼 敬天勤民 迺益永世
 (자자손손 성신수계 경천근민 내익영세)
 嗚呼 嗣王監此 洛表游畋 皇祖其恃
 (오호 사왕감차 낙표유전 황조기시)

<제125장>

해동에 여섯용이 나시어(날으시어) 일마다 하늘이 내려 준 복이십니다.

(이 모습) 옛 성인과 똑같이 일치하십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그치지 않으므로 냇물이 이루어져 바다에 갑니다.

천년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인(仁)을 차곡차곡 쌓은 바탕 위에 나라를 여시어(건국하여) 왕조의 운명이 끝이

387) 해동(海東, 발해의 동쪽이라는 뜻으로 조선을 뜻)의 6대조(용비어천가가 지어진 세종 때를 기준으로 그의 여섯할아버지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을 이룸)

388) 고성(古聖)은 중국에서 나라를 세운 옛 성군을 이르는 말로 이러한 제왕들은 하늘의 뜻을 받아야 했기에 조선 역시 이와 일치한다(동부(同符)하시니)는 비유로 조선 창업이 하늘의 뜻이라는 순리를 내세워 조선의 역성 혁명을 합리화

389) 뿌리가 깊은 나무(즉 국기(國基)인 '나라의 터'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

390) 꽃과 열매는 문화를 뜻하고 이는 문화가 융성하고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391) 근원이 튼튼하고, 유서(由緒)가 깊은 나라

392) 시내를 이뤄 바다로 간다는 것은 조선 왕조의 정당성과 무궁한 발전을 비유

393) 한강 이북, 즉 한양을 이룸

394) 복년(卜年, 하늘이 정한 운수)이 끝이 없다는 것은 조선왕조의 운명이 영원을 의미

395) 하나나라의 태강왕은 조부인 우왕의 공만 믿고 정사를 돌보지 않고 낙수 밖에서 사냥하다가 제후에 의해 폐위 당했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왕권 계승의 올바른 자세를 일깨우고 있음

없습니다. 성스러운 왕손이 (왕위를) 이어서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셔야 (나라가, 왕조의 운명이)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에 사냥하러 가 있으시면서 할아버지만 믿으셨습니까.

1. 갈래 : 악장, 고전시가, 국문시가, 영웅 서사시, 송축가
2. 성격 : 서사적, 설득적, 송축,
3. 배경 : 조선 세종27년(1445)
4. 제재 : 조선 왕조의 창업
5. 주제 : 조선 건국의 6대조 찬양과 왕조의 영원성
조선 건국의 당위성과 후대 왕들에게 왕권 수호의 책임 강화

<표현상의 특징>

-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서사시로 총 125장으로 이루어져 첫 장인 제1장과 마지막장인 제125장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절 4구의 대구 형식
- 용비어천가의 갈래는 악장으로 이는 송도, 송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형식이 자유로움
- 용비어천가가 악장이라 예찬적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왕권 계승에 대한 자세를 깨우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신권에 견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음

<내용상의 특징>

- 제1장의 주제는 조선 왕조 창업의 정당성, 제2장은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제125장은 후대 왕에 대한 권계
- 제1장에서는 전반적인 2절4구 형식의 대구를 취하지 않고 형식의 파격과 비교법을 나타냄
-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고사나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구법과 은유법을 구사하여 우리말로 편찬
- 제125장에서는 용비어천가 전체를 함축하여 중국고사를 후절에 인용하여 주제를 더욱 공고히 함
- 이 작품은 조선 왕조 창업의 천명성과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담은 교술적 성격과 영웅의 일생을 서술한 서사시적인 성격이 같이 나타남
- 창작동기의 관점에서는 표면적으로는 훈민정음의 실용성의 점검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지만 내적으로는 민심을 염려하여 조선 건국의 합리성을 부여하고 후대 왕에게 왕권 수호의 책임감을 깨우치기 위함

「저곡전가팔곡(楮谷田家八曲)」- 이휘일

세상(世上)의 브린 몸³⁹⁶이 견무(畝畝)³⁹⁷*의 늘거 가니
밧겻 일³⁹⁸ 내 모르고 흐는 일 무스 일고³⁹⁹
 이 중(中)의 우국성심(憂國誠心)⁴⁰⁰은 연풍(年豐)을 원 흐노라⁴⁰¹ <제1수>

농인(農人)이 와 이로되 봄 왓너 바딤 가새⁴⁰²
압집의 쇼보* 잡고 뒷집의 싸보* 내너⁴⁰³
 두어라 내 집부딤 흐라 늣 흐니 더욱 도타⁴⁰⁴ <제2수>

여름날 더운 적의 단사히 부리로다⁴⁰⁵
밧고랑 밋자 흐니 썸 흘너 싸희 듯네⁴⁰⁶
 어스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니 분이 알으실고⁴⁰⁷ <제3수>

가을희 곡석 보니 도흠도 도흠세고⁴⁰⁸
내 힘의 날운 거시 머거도 마시로다⁴⁰⁹
 이 밧기 천사만종(千駟萬鐘)⁴¹⁰*을 부러 무슴 흐리오⁴¹¹ <제4수>

밤의란 스출⁴¹² 쇼고 나죄란 썬를 부여⁴¹³
초가(草家)집 자바 미고 농기(農器)점 츠려스라⁴¹⁴
 내년(來年)희 봄 온다 흐거든 결의 종사(從事)⁴¹⁵ 흐리라 <제5수>

*견무: 밭의 고랑과 이랑. 여기서는 시골을 의미함.

*쇼보, 싸보: 농기구인 쟁기와 따비. 따비는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임.

*입립신고: 낱알 하나하나가 모두 농부의 피땀이 어린 결정체라는 뜻으로, 곡식의 소중함을 이르는 말.

*천사만종: 많은 말이 끄는 수레와 많은 봉록.

396) 초야에 묻혀 사는 화자의 처지

397) 논밭의 이랑으로 작품에서는 농촌에서 일하는 것을 뜻함

398) 세상 돌아가는 상황, 부귀영화에 골몰하는 일(속세 일)

399) 무엇인고

400)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401) 풍년이 들기를 원하는 사대부의 마음이 나타남

402) 농사일을 함께 하자는 농부의 말을 인용

403) 도와가며 일하는 농촌의 모습이 드러나 있음

404) 서로를 배려하는 농민들의 마음, 상부상조(相扶相助)

405) 직유법 : 햇빛에 달구어진 땅이 불처럼 뜨겁구나

406) 농사일의 힘겨움을 '땀이 흘러 땅에 떨어진다'고 사실적으로 비유

407) 알아주실까(농부의 고된 노동과 낱알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땀과 정성을 말하며 여름철 힘든 농사일의 수고로움을 알아주지 않는 세태의 안타까움 표현)

408) 가을날의 수확한 곡식을 보는 큰 기쁨

409) 내 힘으로 키운 것이니 먹어도 맛있구나

410) 부귀영화

411)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화자의 정서

412) 샷자리,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

413) 대구법, 농한기인 겨울철의 생활상을 나타냄

414) 손질하여라

415) 마음과 힘을 다함

1. 갈래 : 연시조(평시조 8수가 연첩으로 구성)
2. 성격 : 전원적, 사실적, 향토적
3. 연대 : 조선 중기
4. 제재 : 농촌 생활
5. 주제 : 전원생활에서의 농사일의 즐거움, 농촌 생활의 수고로움과 노동의 보람

<표현상의 특징>

- 대구법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의 구체화
- 설의법을 활용하여 삶의 깨달음을 표현
- 비유법, 대구법, 설의법을 사용한 청유형 방식으로 함께 농사일에 참여 할 것을 권유함
- ‘쇼보, 따비, 농기’ 등의 소재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농촌의 현장에 생동감 부여

<내용상의 특징>

- 사계절에 따른 농사일과 노고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나타남
- 강호한정가와 같은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 달리 화자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하면서 농촌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

「정읍사(井邑詞)」-어느 행상인의 아내

전강(前腔) 들⁴¹⁶⁾하⁴¹⁷⁾ 노피곰⁴¹⁸⁾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⁴¹⁹⁾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소엽(小葉) 아으 다룽디리⁴²⁰⁾

후강전(後腔全) 저재⁴²¹⁾ 너러신고요
어기야 즌 디⁴²²⁾를 드디올세라⁴²³⁾
어기야 어강도리

과편(過篇) 어느이다 노코시라

금선조(金善調) 어기야 내 가는 디⁴²⁴⁾ 점그를세라⁴²⁵⁾

416) 달, 소원(남편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광명의 존재. 종교적인 의미 내포.

417) **돈호법**

418) 노피곰 : 높이 높이

419) 머리곰 : 멀리 멀리 (남편의 무사함을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

420)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후렴구의 역할을 한다. ‘어기야’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나 소리로 여음구이자 조흥구.

421) 시장의 뜻으로 화자의 남편이 행상인임을 암시

422) 즌 디(진곳, 위험한 곳을 포괄적으로 모든 위험을 의미함.)

423) 남편의安危를 해하는 위험에 처할까 두렵다(드디올세라)는 의미나, 혹은 기생들이 모여 사는 거리로 이해할 경우 남편이 주색에 빠지지 않았는지 두렵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

424) ‘내 가는 디’는 화자인 나와 남편이 가는 곳, 나의 가는 곳, 남편이 돌아오는 곳 등으로 해석 가능

425) ‘저물까 두렵습니다’로 해석할 경우 나와 남편의 여로(旅路)로 보고, ‘나와 남편의 인생이 어두워질까 두렵습니다’로도 해석 가능

어귀야 어강도리

소엽(小葉) 아으 다룡디리

[현대어 풀이]

달님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어기야차 멀리멀리 비취 주소서.
어기야차 어강도리

아으 다룡디리

시장에 가 계신가요.
어기야차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어기야차 어강도리

어느곳에서나 놓으십시오.
어기야차 당신 가시는 곳에 저물까 두렵습니다.
어기야차 어강도리

아으 다룡디리

1. 갈래 : 전연시(全聯詩), 백제 가요, 서정시.
2. 성격 : 서정적, 기원적, 여성적, 비유적
3. 연대 : 미상(백제로 추정)
4. 제재 : 남편에 대한 걱정
5. 주제 :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남편의 무사 귀환을 기원

<표현상의 특징>

- 후렴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절들을 정리하면 3장 6구의 형식과 유사하여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 것으로 보기도 함
- 『악학궤범』에 가사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가요이자, 국문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
- 의인법, 돈호법,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냄

<내용상의 특징>

- 화자로 추정되는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는 정보를 참고하면 화자의 상황(남편을 기다림)과 심리(남편의 무사귀환 소망)를 파악할 수 있음.
- ‘달’은 남편의 귀갓길, 아내의 마중길 그리고 부부의 인생을 밝혀줄 상징으로 사용
- 이 작품의 서정적 자아는 우리의 전통적인 여인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감정을 보다 직접적이고 간절하게 표현하고 있어 작중 화자의 태도는 직설적이고 외면적임을 알 수 있음
-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애절한 마음을 나타내는 어조와 관련하여 이 작품을 망부석(望夫石)설화와 연관시키기도 함

「바리데기」- 작자 미상

[앞부분 줄거리] 천별산을 다스리는 오구 대왕⁴²⁶은 부인⁴²⁷을 찾기 위해 천하궁의 같이 박사⁴²⁸에게 길흉화복을 묻는다.

상궁에게 점괘를 일러 주었는데,
“아뢰옵기 황송하나, 금년에 길례⁴²⁹를 하면 칠 공주를 보실 것이요, 내년에 길례를 하면 삼 동궁⁴³⁰을 보시리이다.⁴³¹”

상궁은 돌아와 그대로 아뢰었다. 상궁의 말을 들은 대왕은 웃으면서 말했다.

“문복⁴³²이 용하다고 한들 제 어찌 알쏘냐, 일각이 여삼추⁴³³요, 하루가 열흘 같은데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오구 대왕은 예조⁴³⁴에 택일을 명했다. 삼월 삼일에 초간택⁴³⁵을 봉하시고 오월 오일 단오는 이간택을 봉하시고, 칠월 칠일 견우직녀가 상봉하는 날을 길례⁴³⁶로 정하고 길례도감⁴³⁷을 설치한 후 준비하기 시작했다.

세월은 유수⁴³⁸와 같아 몇 달이 지나가니 길대 부인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 『수라에서는 생쌀 내가 나고, 중전마마가 드시는 물에서는 물속에 생기는 썩은 냄새나는 찌꺼기 내가 나고, 담배에 뜻내가 나고 국에서는 생장 냄새⁴³⁹가 나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⁴⁴⁰

대왕마마에게 아뢰자 대왕마마가 묻는다.

“몽사⁴⁴¹가 어떠하더이까?”

“예, 품안에 달이 돌아 뵈고 오른손에 푸른 봉숭아꽃 한 짝을 꺾어 들고 있더이다.”

대왕마마는 상궁에게 점을 보러 가라 명했다. 천하궁의 같이 박사는 점을 쳐 상궁에게 일러 준다.

“길대 중전마마의 태기가 분명하구나. 자식을 보시는데 여 공주를 볼 것이요.⁴⁴²”

그대로 상달하자,

“문복이 용하다고 한들 제 어찌 알쏘냐.⁴⁴³”

고 웃어넘긴다. 열 달이 되어 낳으니 공주였다. 공주의 탄생을 대왕마마께 아뢰자,

“공주를 낳았으니 세자인들 아니 낳쏘냐, 귀하게 길러라.”

하신다. 공주 애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청대 공주라 하고 별호로 달이장 아씨라 하였다.

세월이 흘러 길대 부인은 또 잉태했는데, 몽사를 말하기를,

“품안에 칠성별⁴⁴⁴이 떨어져 보이고, 오른손에 붉은 봉숭아꽃 한 가지를 물고 있더이다.”

또 딸을 낳아 이름을 흥도 공주라 하고, 별호로 별이장 아씨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아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는데, 계속 딸이 태어나 딸만 육 형제를 두게 되었다.⁴⁴⁵

426) 바리공주의 부친

427) 길대부인, 바리공주의 모친

428) 다지(多智)박사. 용한 점쟁이로 박사는 남자무당을 가리키는 말

429) 길례(吉禮 : 관례, 혼례 등의 경사스러운 예식)

430) 황태자, 왕세자

431) 오구대왕이 일곱명의 딸을 낳게 됨을 암시

432) 길흉(吉凶)을 물음

433)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하여 아주 짧은 시간도 삼 년처럼 느껴진다는 말

434) 예악, 제사 등을 관장

435) 왕비나 세자빈·세손빈·부마 등을 고를 때 첫 번째로 실시하는 간택

436) 관례나 혼례 등의 경사스러운 예식.

437) 예식과 절차를 맡는 임시로 설치하는 관청

438) 유수(流水 : 흐르는 물)

439) 끓이지 않은 장(醬)의 냄새.

440) 길대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여 입덧을 하고 있음

441) 꿈속의 일

442) 같이박사는 딸을 낳을 태몽으로 풀이

443)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에 같이 박사의 점괘를 믿지 않음

444) 복두칠성

445) 딸을 일곱 낳을 것이라는 점괘가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육 형제를 낳은 후 길대 부인은 다시 잉태하였다.
 “이번 몽사는 어떠하더이까?”
 “이번 몽사는 연약한 몸이 부지하기 어려울까 하나이다. 대명전 대들보에 청룡 황룡이 엉켜져 보이고 오른손에 보라매, 왼손에 백마를 받아 보이고 왼 무릎에 흑 거북이 앉아 뵈고 양어깨에는 일월⁴⁴⁶이 돌아 뵈더이다.”
 길대 부인의 말을 들은 대왕은 크게 기뻐했다.
 “그대가 이번에는 세자 대군을 낳겠구려.”
 그러고는 상궁에게 문복 갈 것을 명했다. 문복을 다녀온 상궁이 아뢰었다.
 “이번에도 공주를 본다고 합니다.”
 “점복이 용하다 한들 점복마다 맞출쏘냐. 이번 몽사는 세자 대군을 얻을 몽사로다.⁴⁴⁷”
 하며 사대문에 방을 붙여 옥문⁴⁴⁸을 열어 중죄인을 용서하게 하였다. 드디어 열 달이 되어 해산을 하였는데 또 딸이었다. 길대 중전마마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대왕은 길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내 전생의 죄가 남아 옥황상제가 일곱 딸을 점지하였구나. 서해 용왕에게 진상이나 보내리다.⁴⁴⁹”
 옥장이 불러서 옥함⁴⁵⁰을 짜게 하여 함 뚜껑에 ‘국왕 공주’라고 새기게 했다.
 중전마마가 탄식하며 말했다.
 “대왕마마는 모질기도 모지시다. 혈육을 버리려 하옵시니, 신하 중 자식 없는 신하에게 양녀로 주시지⁴⁵¹.”
 대왕마마는 중전마마의 말을 듣지 않았다.⁴⁵²
 “버리는 자손 이름이나 지읍시다.”
 “버려도 버릴 것이요 던져도 던질 것이니 ‘바리공주’라 지어라.⁴⁵³”
 양 마마의 생월 일시와 아기의 생월 생시를 옷고름에 맨 후⁴⁵⁴에 옥병에 젖을 넣어 아기 입에 물린 후 함에 넣었다. 금 거북 금 자물쇠, 흑 거북 흑 자물쇠를 채운 후에 신하를 시켜 바다에 버릴 것을 명했다. 앞에는 황천강, 뒤에는 유사강이 흐르는 여울⁴⁵⁵에 한 번 던지니 용솟음하여 물으로 다시 나오고, 두 번째 던져도 물으로 다시 나온다. 세 번째 던지니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늘이 아는 자손이라 깊이 가라앉지 않고 금 거북이 나타나 지고 간다.⁴⁵⁶

1. 갈래 : 무조(巫祖)신화, 서사 무가
2. 성격 : 무속적, 교훈적, 신화적, 서사적
3. 제재 : 바리공주의 일상
4. 주제 : 바리공주의 고난과 희생을 통한 구원의 성취.

<서술상의 특징>

- 4·4조의 율격으로, 구연을 위한 운문체
- 죽은 사람의 원혼을 달래주고 극락천도를 기원하는 오구굿에서 가창
- 신의 내력담이 영웅서사구조에 따라 전개됨
- 바리공주의 탄생과정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됨

446) 그전의 태몽에서는 달, 복숭아꽃, 칠성별, 붉은 복숭아 꽃이 등장 평범한 딸이 태어났지만. 바리공주의 태몽에는 청룡, 황룡, 보라매, 백마, 흑거북, 일월이 등장해 비범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암시

447) 이전의 태몽과는 달라 이번에는 자신의 대를 이을 세자를 낳게 될 것으로 기대

448) 감옥의 문

449) 바다에 버리려고 함

450) 옥으로 만든 함(바리공주를 버리기 위해 만들)

451) 딸을 잃고 싶지 않은 길대 부인의 마음

452) 완고하며 비정한 인물

453) ‘바리공주’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내막

454) 바리공주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정보

455) 강이나 바다의 바닥이 얇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

456) 바리공주의 비범한 인물임이 드러남

<내용상의 특징>

- 남존여비사상과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식 드러남
- 바리공주를 통해 당시 여성의 수난을 형상화함과 동시에 소망을 반영
- 무속 제의에서 불린 구비문학으로 오락적, 문학적 기능을 가짐
- 죽음을 주관하는 무조신의 유래를 밝힘
- 영원히 살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과 초월적 세계에 대한 염원 반영
- 유교, 불교, 도교, 무속의 혼합된 배경사상을 바탕

「임진록(壬辰錄)」- 작자 미상

백관이 주 왈⁴⁵⁷⁾,

“만민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남은 백성이 마자 함몰케 되었사오니⁴⁵⁸⁾ 원컨대 전하는 급히 처치하소서.”

왜왕이 서안(書案)⁴⁵⁹⁾을 치고 방성대곡⁴⁶⁰⁾ 왈,

“방금 사세 여차(事勢如此)⁴⁶¹⁾하니 경 등은 염려치 말라. 내 어찌 만민을 구치 아니하리요.”

하고 칼을 들어 자문(自刎)*코자 하거늘 신하 호걸산이 급히 들어와 읍주 왈⁴⁶²⁾,

“전하는 아직 옥체를 보중⁴⁶³⁾하소서.” / 하고 칼을 쥐고 문무백관⁴⁶⁴⁾이 한가지로 사명당 앞에 나아가 복지 왈⁴⁶⁵⁾,

“소국왕⁴⁶⁶⁾이 무도⁴⁶⁷⁾하여 부처님을 모르고 사죄(死罪)⁴⁶⁸⁾를 지었사오니 복걸⁴⁶⁹⁾ 부처님은 덕택을 드리워 소국왕의 죄를 사(赦)하시고 억만창생⁴⁷⁰⁾을 살리소서.”

하고 일시에 머리를 조아려 통곡하며 일제히 손을 고쳐 축수⁴⁷¹⁾하거늘 사명당이 대로⁴⁷²⁾하여 꾸짖어 가로되,

『“빨리 왜왕의 머리를 버혀 들어 생령⁴⁷³⁾의 도탄⁴⁷⁴⁾을 면하라.”』⁴⁷⁵⁾

백관이 고두 사죄⁴⁷⁶⁾ 왈, / 『“소신 등이 원컨대 왕명을 대신하여 각각 머리를 베어지이다.”』⁴⁷⁷⁾

하거늘 사명당이 그제야 노를⁴⁷⁸⁾ 잠깐 그치고 이르되,

“너의 정성을 감동하여 아직 용서하나니 빨리 왜왕을 결박하여 대하⁴⁷⁹⁾에 풀리라. 불연즉⁴⁸⁰⁾ 왜왕의 머리를 버혀 가지

457) 모든 관리들이 말하길

458) 사명당이 풍랑을 일으켜 일본백성에게 큰 피해가 발생

459) 책상

460) 대성통곡(大聲痛哭 : 큰소리로 몹시 슬프게 곡을 함)과 같은 말

461) 일이 되어가는 형세가 이와 같음

462) 읍(擯)하면서 아뢰어 말하길

463) 몸을 유지하다

464) 문관과 무관 모든 신하

465) 땅에 엎드려 말하길

466) 일본왕

467) 도리에 어긋나다

468) 죽어 마땅한 죄

469) 엎드려 뵈

470) 수많은 백성

471) 손을 마주대고 빌다

472) 크게 노하다

473) 살아 있는 놈. 생명

474) 몹시 곤궁하고 고통스러운 지경

475) 『』 ‘일본왕의 머리를 베어오면 살려주겠다’는 의미

476)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을 뵈

477) 자신들이 대신 죽고자 하며 일본왕에 대한 충성심 표현

478) 분노를

479) 대의 아래

고 일본을 탕멸⁴⁸¹하리라.”

중관⁴⁸²이 차언⁴⁸³을 듣고 왜왕에게 돌아가 그 수말⁴⁸⁴을 고하니 노산홍이 주 왈,

“사세 위급하오니 전하는 부처⁴⁸⁵의 말대로 하시면 생명을 보전하려니와 만일 지원⁴⁸⁶하면 대화⁴⁸⁷ 당도하리이다.”

왕이 노산홍의 손을 잡고 통곡 왈, / “과인이 일찍 경의 말을 들었던들 어찌 오늘날 환을 만나리요.”⁴⁸⁸

하고 하릴없이⁴⁸⁹ 흰옷을 입고 스스로 결박하여 문무백관을 거느려 『항표⁴⁹⁰』를 가지고 사명당 앞에 나아가 복지 청죄⁴⁹¹한대』⁴⁹² 사명당이 고성대매⁴⁹³(高聲大罵)* 왈,

“왜왕은 들으라. 『너희 나라가 근본 진시황(秦始皇)의 신하로 동남동녀 오백 인을 배에 싣고 방장(方丈) 봉래(蓬萊) 영주(瀛州) 삼신산⁴⁹³에 들어가 불사약(不死藥)을 얻으러 가노라 하고 천자를 속이고 이곳에 도망하여 거짓 신선이라 칭하고 여러 대를 평안히 지내매』⁴⁹⁴ 또한 조선 덕택이요, 너도 또한 『천상 익성⁴⁹⁵(天上翼星)으로 반도회⁴⁹⁶(蟠桃會)에 참여⁴⁹⁷하여 월궁항아⁴⁹⁸(月宮姮娥)를 희롱한 죄로 상제께 득죄하고 인간에 적거⁴⁹⁹(謫居)하여 대왕이 되었거늘』⁵⁰⁰ 임자년에 외람한 의사를 내어 조선을 침노하여 생명을 많이 살해하며 상천(上天)이 진노하사 극벌⁵⁰¹(極罰)을 내려 너희 장졸을 다 멸하였거늘 네 아무리 속객⁵⁰²(俗客)이 되었은들 아득히 알지 못하고 조선을 침범코자 뜻을 다시 내매 상제 노하사 사해용왕⁵⁰²을 주시고 너희 죄상을 물으라하시매 내 특별히 문죄하나니 어찌 감히 거역하느냐, 빨리 머리를 베어 들이라.”

왜왕이 돈수⁵⁰³ 청죄 왈, / “소왕⁵⁰⁴이 밝지 못하여 천위⁵⁰⁵(天威)를 범하였사오니 덕택을 드리워 죄를 용서하소서.”

사명당 왈, / “네 이제는 순종할쏘냐.”

왜왕이 사죄 왈, / “수화 중(水火中)이라도 어찌 사양하리이까.”

사명당 왈, / “네 그러면 예단⁵⁰⁶(禮緞)을랑 말고 인피⁵⁰⁷(人皮) 삼백 장씩 매년 진공⁵⁰⁸(進貢)하라.”⁵⁰⁷

왜왕이 이 말을 듣고 주저하여 진시 답지 못하거늘 백관이 주 왈, / “전하는 근심 말으시고 윤종⁵⁰⁹하소서.”

왕이 마지못하여, / “그대로 하리이다.”

하거늘 사명당이 또 이르되, / “그러면 문서를 써 올리라.”

왜왕이 이에 문서를 써 올리거늘, / 사명당 왈, / “차후는 생심⁵⁰⁸도 외람한 뜻을 두지 말라.”

480) 그렇지 않으면

481) 모조리 멸망시킴

482) 내시

483) 이 말을

484) 일의 시작과 끝

485) 사명당

486) 더디고 느슨하다

487) 큰 재앙

488) 과거에 일본왕이 노산홍의 충고를 듣지 않음

489) 어쩔 도리 없이

490) 항복할 의사를 적에게 알리는 글.

491) 땅에 엎드려 죄를 청함

492) 『 』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다름

493) 봉래, 방장, 영주를 상징

494)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 보낸 신하들이 일본을 세웠다는 전설

495) 별자리 중 하나로 바다뱀자리

496) 복숭아 연회, 서왕모의 생일 축하연

497) 참여하여

498) 전설에서 달에 있는 궁에 산다는 선녀

499) 귀양살이

500) 왜왕의 전생

501) 혹독하게 벌함

502) 전설에서, 동서남북의 네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는 용왕.

503) 머리를 조아림

504) 일본왕이 자신을 낮추어 이름

505) 제왕의 위엄

506) 예물로 보내는 비단

507)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는 뜻. 충성심의 요구

508)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음

왕이 돈수 침명⁵⁰⁹하거늘 이에 용왕을 불러 왈,

“이제 왜왕이 항복하매 죄를 사하였으니 용왕은 풍운뇌우(風雲雷雨)를 거두라.⁵¹⁰⁾”

하니 즉시 천지 명량⁵¹¹하고 일색이 조요⁵¹²하니 일본 군신 백성이 저마다 놀라고 칭찬하며 과연 생불⁵¹³이라 하더라.

*자문: 스스로 자신의 목을 베거나 찌름. 또는 그렇게 하여 죽음.

*고성대매: 크고 높은 목소리로 호되게 꾸짖음.

*윤증: 남의 말을 좇아 따름.

1. 갈래: 역사소설, 군담소설
2. 성격: 전기적(傳奇的), 설화적
3. 시점: 전지적 작가시점
4. 배경:
 - 시간 -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 전후
 - 공간 - 조선팔도 및 왜국
5. 제재: 임진왜란 당시 영웅들의 활약
6. 주제: 임진왜란의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 및 민족적 자긍심 고취

<서술상의 특징>

-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사명당의 감정과 생각,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
-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설화와 혼용하여 소설로 창작
- 영웅적 인물들이 활약하는 애국적 무용담을 순차적으로 엮음
- 우리나라 군담 소설의 대표작

<내용상의 특징>

- 임진왜란의 패배로 인해 위축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고취하기 위해 창작됨
- 민족적 응전(應戰) 의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허구를 가미함
- 임진왜란 중에 활약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며 민중의 정서와 역사의식에 따라 변용

509) 부수침명(俯首聽命: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따른다는 뜻으로,윗사람의 위엄에 놀려 명령대로 좇아 행함을 이르는 말)

510) 용왕에게 명령할 정도인 사명당의 위세

511) 흐린데 없이 밝고 환함

512) 밝게 비쳐서 빛남

513) 살아있는 부처